

2020 국별 진출전략

싱가포르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경제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3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가. 싱가포르 정부 총선 준비 본격화	4
나. 5G 네트워크 구축	4
다. 2020년 싱가포르 상품서비스세 변화	5
라. 싱가포르 정부 향후 정책 방향	6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7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7
가. 정치 환경	7
나. 경제 환경	7
다. 산업 환경	8
라. 정책·규제 환경	9
2. 시장 분석	11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1
나. 교역	12
다. 투자진출	15
라. 인력진출	17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21
가. 교역	21
나. 투자	23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5
III. 진출전략	26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6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7
3. 한-싱가포르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2
4. 진출 시 유의사항	36
첨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37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39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40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41
부 록	
對싱가포르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42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경제 전망

2020년 경제 소폭 상승 전망

- 싱가포르 GDP 성장률은 2019년의 0.6%에서 2020년 1.6%로 소폭 상승할 전망
 - 지속되는 미·중 무역 분쟁과 중국의 더딘 경제성장, 홍콩, 페르시안 걸프의 지역적 이슈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 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3분기 싱가포르 경제가 제조업의 소폭 개선에 따라 0.4%의 성장률을 기록함 이에 기술적 침체 (technical recession)를 면하면서 2020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World Bank, 2018년 기준 싱가포르의 대외의존도는 326%로 한국(83%)의 약 3.9배 수준임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구	백만 명	5.5	5.6	5.6	5.6	5.6	5.6
명목 GDP	십억 달러	306.3	316.6	336.7	361.1	372.8	391.9
1인당 명목GDP	달러	55,331	56,455	59,990	64,041	65,627	68,487
실질성장률	%	2.2	2.8	3.7	3.1	0.6	2.4
실업률	%	1.9	2.1	2.2	2.1	2.2	NA
소비자물가상승률	%	-0.5	-0.5	0.6	0.4	0.5	NA
재정수지(GDP대비)	%	3.6	3.3	5.6	2.1	1.5	NA
총수출	백만 달러	346,701	329,910	373,367	412,813	192,077*	NA
(對韓 수출)	"	14,503	14,511	16,793	15,679	6,226*	NA
총수입	"	296,876	282,995	327,707	370,650	177,317*	NA
(對韓 수입)	"	18,197	17,001	16,166	14,198	6,070*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49,921	46,865	45,648	42,163	14,760	NA
경상수지	"	72,897	76,897	76,510	87,772	NA	NA
환율(연평균)	현지국/US\$	0.7274	0.7239	0.7243	0.73743	0.7217	NA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7,185	7,835	6,188	NA	NA	NA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12,671	13,594	15,679	NA	NA	NA

주 : *는 1~5월 누계, 2019년은 추정치, 2020년은 전망치
 자료 : IMF, KITA, 한국수출입은행, 싱가포르 통계청(SingStat)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싱가포르는 2020년 총선 준비에 따른 자국민 민심 확보를 위해, 유아 교육비 지원, 헬스케어 부문 노인복지 확대 및 인프라 개발 등 내부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출증가에 대비, GST를 인상할 예정임. 더불어 대외적으로는 CPTP, RCEP 등 다자간 무역협정이 2020년도 안에 발효·협상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자국의 시장영역을 확대하고자 함

가. 싱가포르 정부 총선 준비 본격화

2020년 선거 실시 관련 상황 및 전망

- 싱가포르 총선, 2020년 실시 전망
 - 싱가포르의 선거부(Singapore Elections Department, ELD)가 2019년 9월 4일 Electoral Boundaries Review Committee(EBRC)의 구성을 발표하면서 싱가포르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함. 다음 총선은 2021년 4월 내로 실시 예정
- 싱가포르경영대학(SMU) 법학과 교수 Eugene Tan은 이번 총선이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후인 향후 7~9개월 사이 즈음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함
- 차기 총리 후보 단독 출마 예상
 - 리셴룽 총리의 후임으로 꼽히는 흥스위킷(Heng Swee Keat) 재무장관이 2019년 5월부터 34년 만에 단독 부총리로 임명됨
 - 기존 부총리였던 테오 치헨(Teo Chee Hean)과 타르만 산무가라탄(Tharman Shanmugaratnam)은 부총리직에서 물러나며 각각 경제와 사회정책조정 장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번 임명은 現 67세인 총리가 70세 전에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계획의 일환으로 차세대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지도부를 인계하는 중

나. 5G 네트워크 구축

5G 구축 정책 발표

- 싱가포르, 2020년까지 5G 네트워크 구축 예정
 -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이 2020년까지 최소 2개의 전국적인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2019년 10월, 기존 2개에서 4개로 늘려 서비스 혁신과 5G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힘

- IMDA는 Singtel, StarHub, M1 및 TPG Telecom 등 국내 4개 이동통신사 대상 2020년 1월까지 제안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며, 이후 5G 주파수가 배정될 전망이다

싱가포르 4대 이동통신사 정보

기업명	기업정보	5G 네트워크 기술현황
 Singt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최대 이동통신사 - 점유율 51.7%(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ngtel과 Ericsson이 2019년 1월 싱가포르 최초의 '라이브 5G' 테스트 시설 5G Garage를 개관하였으며, 해당 시설은 드론과 무인자동차 등의 5G 기술을 테스트하고, 개발에 사용 예정
 StarHu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기업 - 점유율 30.0%(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11월 Nokia와의 협력으로 해당 사 최초의 야외 5G 3.5GHz 주파수 파일럿 테스트 완료 - '라이브 5G' 신호를 통해 테스트와 관련 파트너 업체와의 협력을 지속 중임
 M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기업 - 점유율 17.5%(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과 싱가포르 항만청(PSA)의 협력 프로 젝트인 5G Trial Tech Call programme 통해 '스마트 항구' 위한 5G 기술 개발 참여 - 2018년 6월 화웨이(Huawei)와 라이브 5G 테스트 파트너십 발표
 TP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기업(2019년 1월 진출) - 점유율 1.3%(2019년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PG는 CapitaLand와 NavInfo DataTech과 함께 2019년 10월 최대 5G 스마트 부동산 테스트 건물을 싱가포르 과학 단지 내에 구축함

자료 : DBS Bank, 각 회사 공식 웹사이트

- 5G 개발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책
 - (네트워크 개발) 5G 대역 소유권 발행 이전까지 기술적·상업적 테스트를 위한 5G 주파수 이용 금액 면제
 - (애플리케이션 개발) 싱가포르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 선도를 목표로 4,000만 싱가포르달러의 보조금 지원

다. 2020년 싱가포르 상품서비스세 변화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

- 2021~2025년 사이에 GST를 현 7%에서 9%로 2%p 인상 예정
 - 정확한 시기는 싱가포르의 경제 상황, 향후 지출증가 동향, 세금 부양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이라 전망

수입서비스세 변화

- 싱가포르 정부는 국내 서비스공급자와 해외서비스공급자 간 발생하는 경쟁왜곡을 줄이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수입된 서비스에도 과세 적용
 - (적용 대상) 수입서비스를 제공하는 Business-to-Business(B2B) 공급자 및 수입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Business-to-Consumer(B2C) 해외공급자
 - (적용 서비스) 마케팅, 회계, IT, 법률, 인사, 경영, 로열티 및 면허, 컨설팅 등
 - (적용 디지털서비스) 해외 디지털 콘텐츠(모바일 애플리케이션, e-book, 영화), 구독 서비스(뉴스, 잡지, 방송 스트리밍, 음악,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등

라. 싱가포르 정부 향후 정책 방향

싱가포르 총리 건국기념일 연설 주요 내용

- 싱가포르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건국기념일(National Day Rally) 연설에서 Lee Hsien Loong 총리가 아래와 같이 중점 분야를 발표함
 - (교육비 지원 확대) 유치원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월 소득 한도를 기존 7,500달러에서 12,000달러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약 3만여 가구가 추가로 유치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지원 금액 또한 전반적으로 증가할 예정임
 - 싱가포르 사회과학대(SUSS)와 싱가포르 공대(SIT)의 일반학위 과정 1년 학비가 8,000달러에서 7,500달러로 인하할 예정임
 - (고령근로자 복지) 은퇴 연령이 2022년부터 2030년까지 현행 62세에서 65세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임. 재취업(re-employment) 연령은 2030년까지 67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됨. 고령 근로자의 CPF 납입금 또한 향후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최종적으로 60세까지 임금의 37%를 CPF로 납입하게 할 예정
 - (기후 변화 및 해수면 상승 예방) 싱가포르는 저지대 섬으로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위협에 취약함.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오는 100년간 1,0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임
 - (향후 국토개발계획) Greater Southern Waterfront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풍골 바이 더 베이(Punggol By the Bay)와 센토사에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비슷한 플라우브라니(Pulau Brani) 개발 계획을 발표함
 - (미·중 무역 분쟁 대응) 싱가포르는 중국 이외의 나라 중 중국 인구(74%)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일한 국가로써 미·중 양국과의 관계를 원칙을 통해 풀어가겠다고 설명함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싱가포르는 고조되는 미·중 무역 분쟁에서 비롯한 수출 부진으로 2019년 저조한 경제성장(0.6%)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반면, 제조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 등 안정적인 내수 중심산업을 기반으로 기술적 침체(technical recession)를 면할 예정이며, 2020년에는 2.2% 성장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가. 정치 환경

매우 높은 정치적 안정성 보이는 싱가포르

- 50년 넘게 집권 중인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PAP)
 - 2015년 총선에서도 인민행동당이 69.9%로 대승을 거두며, 집권체제 이어감
 - 싱가포르 국민들은 지난 50여 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체제를 구축한 여당에 대한 믿음이 강함
 - 2017년 9월 대선, 인민행동당 소속의 할리마 야콥이 대통령으로 당선됨
 - 2004년부터 총리직을 맡아온 리셴룽 총리는 이번 임기까지만 총리직을 수행하고, 은퇴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으며, 최근 형 스윗 킷 재무장관을 단독 부총리로 승격, 점진적인 권력 이양이 진행됨에 따라 싱가포르의 정치적 안정성은 유지될 전망

* 국제투명성기구(T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7」 세계 6위(한국 : 세계 51위)

나. 경제 환경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 2019년 경제성장률 0.0%~1.0%로 하향 조정

- 2019년도 2분기 경제성장률, 10년 만에 최저치(0.1%) 기록
 - 지속되는 미·중 무역 분쟁과 중국의 더딘 경제성장, 브렉시트의 연기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의 증대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함
 - 이에 통상 분쟁에 따른 글로벌 전자 제품산업의 부진으로 제조업이 매우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외부지향적 서비스산업 중 도소매무역업과 운송 및 저장업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임

싱가포르 산업별 경제성장률

(단위 :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체	1분기	2분기
상품 제조산업	5.7	6.5	7.8	2.5	3.5	5.0	0.1	-2.2
제조업	10.1	10.0	10.6	3.5	4.6	7.0	-0.3	-3.1
건설업	-8.4	-6.4	-4.3	-2.6	-1.2	-3.7	2.8	2.9
서비스산업	2.8	4.4	2.9	2.8	1.5	2.9	1.2	1.1
도소매업	2.3	2.9	2.6	2.4	-0.8	1.7	-2.5	-3.2
운송저장업	4.8	1.8	1.2	1.6	0.5	1.3	0.7	2.2
숙박요식업	1.2	0.8	3.5	3.4	3.5	2.8	2	0.9
정보통신업	3.3	5.5	6.1	5.1	5.0	5.4	5.2	4.1
금융보험업	4.8	10.1	5.8	3.9	3.7	5.8	3.2	5.2
비즈니스서비스업	0.6	3.5	2.1	3	2.6	2.8	1.7	0.5
기타 서비스업	2.6	3.4	1.1	1.8	0.3	1.6	2.6	2.1
전체	3.6	4.6	4.2	2.6	1.3	3.1	1.1	0.1

자료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2019년 9월 기준 최신자료)

다. 산업 환경

 **금융 산업**

- 정부의 전략적 금융 산업 육성정책으로 세계적인 금융허브로 발전
 - 정치적·사회적 안정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률제도,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제도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우수 금융기업 유치 및 금융허브로 발전
 - 스마트 금융허브로 도약을 목표로 샌드박스(sand box) 도입, 핀테크 전담조직 설립, Singapore Week of Innovation and Technology(SWITCH)와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SFF) 개최 등 핀테크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음
 - * Z/Yen,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세계 4위(서울 : 세계 27위)
 - * Singapore FinTech Festival : 2020년 11월 9~13일 개최 예정(주최 : 싱가포르 통화청)

 **물류 산업**

-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일찍이 중개무역항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물류 산업 발달
 - 싱가포르는 총 123개국, 600개 항구와 연결되어 있는 세계 최대 환적항임
 - 국제해사기구(IMO)는 싱가포르·말라카 해협 내 선박 이동량이 2030년까지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로 인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교통관리 및 선박 지원, 선원 교육, 자동화 추진 등에 대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3국 간 지속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 발표함
 - * Menon, 「The Leading Maritime Capitals of the World 2019」 세계 1위(부산항 : 세계 10위)

- 싱가포르 정부는 항구 확장, 신기술 도입 등 항만 인프라 개발에 지속 투자 중
 - Tuas Terminal의 대형 매립공사 현장에서 2019년 7월 4일 케이슨(Caisson) 진수식이 진행됨. 투아스 핑거 3(Tuas Finger 3)은 싱가포르 내 최대 규모인 케이슨 227함을 제작해 설치할 예정으로 2018년 4월 네덜란드 Boskalis사, 일본 Penta-Ocean Construction사, 현대건설 등으로 구성된 다국적 컨소시엄과 14.6억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개발 2단계에 돌입함. 공사 기간은 총 108개월로 2027년 3월 준공 예정임
 -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과 항만관리위원회(PSA)는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과 해양 분야 선도업체, 현지 이동통신사 등과 협력하여 동 분야에서의 5G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드론, 자율운항선박, 해양설비무선조종 등의 활용을 지원하고 있음
 - 2019년 3월, IMDA와 PSA가 Panjang Terminal을 5G 테스트장소로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선정된 두 개의 통신사 Singtel과 M1이 항만장비 통신제어장치, 크레인 자동화,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향상 등을 위해 참여하기로 결정, 이는 2019년 3분기 시작되어 18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임
 - M1은 2019년 초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과 Keppel O&M과의 협력으로 자율운항선박(MASS)의 테스트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선박과의 자유로운 소통연결성과 IoT기술의 해양 분야 응용에 M1의 4.5G 네트워크를 사용함
- 세계 최고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인프라 개발 지속
 -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90개국, 380여 개 도시를 잇는 항공허브로 2018년 한 해 역대 최다 이용객인 6,560만 명을 기록하며, 2017년 대비 5.5%의 이용객 상승률을 보임. 여객기 이동률은 3.4%, 수화물량은 1.4% 증가함
 - * World Bank, 「Logistics Performance Index 2018」 세계 7위(서울 : 세계 25위)
 - * Skytrax, 「World Airport Awards 2018」 창이공항 세계 1위(인천공항 : 세계 2위)
 - 창이국제공항은 현재 4개 터미널을 운영 중이며, 아세안 단일 항공 시장 도입으로 예상되는 수요 증가에 대비해 복합쇼핑몰 구축, 제1, 2터미널 확장, 제5터미널 개발 등 인프라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 창이 이스트(Changi East) 프로젝트는 창이국제공항 제5터미널을 타나메라 페리터미널과 연결해 항공과 수상교통을 잇는 fly-ferry linkages를 구축, 공항도시(aeropolis) 건설을 목표로 함

라. 정책·규제 환경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복지 정책

- 노인 대상 의료보장제도 대폭 개선
 - 2019년 싱가포르 정부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노인 의료비를 지원하는 'Merdeka Generation

Package'를 통해 총 61억 싱가포르달러가 쓰일 계획이며, 메르테카 세대는 1950년대 생을 일컬으며, 이들 약 50만 명에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저축계좌 메디세이브(Medisave)에 매년 200싱가포르달러씩 지원하는 등 각종 의료혜택이 제공될 예정

○ 싱가포르 장기요양보장제도 확대

- 싱가포르 정부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40세 이상 중증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장기보험인 엘더실드(ElderShield)를 2021년부터 비영리로 운영할 계획임
- 더불어 중증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지원금액과 보험대상을 더욱 확대한 케어실드 라이프(CareShield Life)를 2020년 도입할 예정임

 무역협정 체결현황

○ 총 25개 자유무역협정 발효(양자간 14개, 다자간 11개)

- 최근 발효된 협정에는 점진적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2018.12.30 발효)과 싱-유럽연합 자유무역협(EUSFTA, 2019.11.21 발효)이 있음
- 현재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세안-인도(서비스&투자), 아세안-일본(서비스 &투자), 싱-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싱-태평양동맹 (PASFTA) 등 5개 협상 진행 중***

* 미국의 TPP 탈퇴 선언 후 11개국은 협정 명칭을 기존 TPP에서 CPTPP로 변경 후 2018년 1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합의 완료 및 2018년 3월 8일 칠레에서 서명함. 싱가포르는 2018년 7월 19일 멕시코와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CPTPP를 비준함

** EUSFTA는 2014년 협상이 완료되었으나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유럽 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 비준권한 검토를 요청하면서 발효가 지연되고 있었음. 이후 2017년 5월 유럽 재판소에서 EU 집행위원회가 각 국가를 대표하여 EUSFTA를 비준할 수 없고, EU 내 38개 국가 및 지역당국의 승인을 개별적으로 모두 받아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최종 발효까지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며, 싱가포르 정부는 EUSFTA가 2009년 협상이 중단된 ASEAN-EU FTA 진행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 싱-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2019년 10월 25일 체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은 2019년 말 협상 완료할 것으로 예상

2 시장 분석

싱가포르는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진입장벽이 매우 낮은 시장으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기업들의 수출 및 투자진출 성공·실패 사례를 미루어 보았을 때, 진출 자체는 쉽지만 그만큼 경쟁이 심하므로 싱가포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점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 전략, 현지 파트너 모색, 철저한 진출 비용분석 등이 필수적임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교두보

- 개방형 경제
 - 국토가 좁고, 지하자원이 전무한 환경적 여건으로 인해 일찍이 정부 주도의 대외개방형 경제를 추구함. 이에 주류, 담배 제품, 자동차 및 석유제품 외 무관세 정책을 시행,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2018년 무역액은 전체 GDP의 약 1.9배로, 40% 이상이 중개무역으로 구성됨
- 기업하기 좋은 환경
 - ‘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지’를 목표로 하는 싱가포르는 안정되고, 일관된 정부정책, 親기업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싱가포르 내 유치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함
 - 17%의 낮은 법인세, 영어 공용화, 투명하고, 빠른 행정절차, 공정한 사법제도, 탄탄한 사회 및 산업 인프라 등의 이점을 제공해 7,000여 개의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 60% 이상이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 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로 활용하고 있음
 -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8」 세계 2위(한국 : 세계 4위)
- 낮은 문화적 진입장벽
 - 싱가포르는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중국계(74.3%), 말레이계(13.4%), 인도계(9.1%) 및 기타(3.2%)로 구성됨.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 4개 언어를 공용어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음
 - 종교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불교(33.3%), 기독교(18.3%), 무교(17.0%), 이슬람교(14.7%), 도교(10.9%), 힌두교(5.1%) 및 기타(0.7%)로 다양한 형태임
 - 싱가포르는 전체 인구의 약 30%(영주권자 포함할 경우 40%)가 외국인으로 구성될 정도로 외국문화에 대한 개방도가 높고 문화적 진입장벽이 낮음
 - 글로벌 기업들은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 진출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음

나. 교역

싱가포르 수입 동향

- 2018년 싱가포르 수입시장, 전년 대비 14.5% 성장
 - 글로벌 경기침체, 유가 하락 장기화 등으로 인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싱가포르의 전체 수입규모는 2018년 14.5% 증가하며 지속 상승
 - 싱가포르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으로부터 수입 비중은 2018년 기준 13.7%이며 그 뒤로 말레이시아(11.8%), 미국(11.1%) 순임
 -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지속 하락추세로 순위가 7위로 한 단계 내려갔으며, 비중은 5.1%(2017)에서 3.8%(2018)로 1.3%p 감소함. 이는 한국의 수출이 전자직접회로(8542), 반도체(8486) 등 몇 개 품목에 치우쳐져 해당 품목의 감소가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보임

싱가포르 국가별 수입 동향(2019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중국	22,550	-6.49	25,204	11.77	28,817	14.34	27,754	-3.69
2	미국	17,494	-10.91	19,757	12.93	23,386	18.37	25,583	9.39
3	말레이시아	17,728	-9.81	21,789	22.9	24,727	13.49	23,812	-3.7
4	대만	12,681	-12.22	14,786	16.6	17,622	19.18	18,209	3.33
5	일본	11,713	2.39	11,641	-0.61	12,838	10.28	11,296	-12.01
6	인도네시아	8,235	-8.26	8,326	1.1	8,811	5.83	8,899	1.01
7	한국	10,112	-3.61	9,294	-8.08	7,990	-14.04	8,208	2.73
-	전체	164,475	-10.49	183,552	11.6	210,224	14.53	208,214	-0.96

자료 : GTA(주 : *는 2019년은 추정치)

싱가포르 수출 동향

- 2019년 싱가포르 수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이 올해 싱가포르의 비석유 부문 국내수출(Nodx)을 선적량의 -9.2% 감소 예상과 함께 -9.0~-8.0%로 하향조정 함. 이는 1분기 예상치였던 -2.0~0.0%에서 대폭 하락한 수치임
 - 이는 싱가포르의 주 교역국인 중국과 아세안, 일본의 경제 저조 전망과 함께 유가 하락으로 인한 저조한 석유 수출 예상이 요인임
- 수출침체 지속 전망
 - (미·중 무역전쟁) Fitch Solution의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 한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국가 중 하나로 나타남

- (한·일 무역 분쟁) 전자 제품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으로 싱가포르 수출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 및 경쟁 동향

- 우리나라의 대(對)싱가포르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 반도체, 선박류이고, 주요 수입 품목은 반도체, 석유화학중간원료, 기기류 등임
- 2018년, 대(對)싱가포르 수출은 11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고, 수입은 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4% 감소한 수치를 보임
 - 전자직접회로,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이 감소를 보인 반면, 화장품은 K-Pop, 드라마 등 한류의 인기로 2018년 기준 203백만 달러로 2016년 대비 약 2배 증가함

대(對)싱가포르 상위 5개 수출품목 및 경쟁 동향(2019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HS코드	품목	순위	국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	2710	석유와 역청유 (원유 외)	1	말레이시아	5,544 (16.8)	8,155 (17.5)	9,728 (17.7)	3,954 (20.4)
			2	중국	3,709 (11.2)	4,827 (10.3)	6,355 (14.8)	3,254 (15.9)
			3	러시아	2,239 (6.4)	4,007 (8.5)	4,612 (8.6)	2,558 (11.0)
			4	한국	2,516 (9.5)	2,484 (5.9)	2,782 (4.8)	1,351 (6.6)
2	8542	전자직접회로	1	대만	17,036 (31.9)	20,398 (34.4)	24,060 (37.1)	9,460 (39.6)
			2	말레이시아	6,786 (12.7)	9,175 (15.5)	10,132 (15.7)	3,808 (15.4)
			3	한국	10,994 (20.6)	10,180 (17.2)	7,368 (11.8)	2,740 (10.7)
3	8486	반도체	1	미국	1,706 (39.7)	1,517 (34.4)	1,780 (37.1)	486 (30.4)
			2	일본	945 (22.0)	846 (19.2)	1,168 (21.2)	325 (23.1)
			3	말레이시아	373 (8.7)	641 (14.5)	636 (13.2)	205 (12.9)
			5	한국	142 (3.3)	221 (5.0)	203 (3.7)	95 (6.6)
4	8473	기계 부속·부분품	1	중국	1,813 (41.1)	2,382 (47.5)	2,243 (46.0)	863 (32.7)
			2	대만	323 7.2	312 7.0	418 5.7	781 (30.1)
			3	말레이시아	898 (20.3)	904 (18.0)	1,093 (21.5)	480 (19.9)
			5	한국	92 (2.1)	139 (2.8)	157 (3.8)	77 (2.7)
5	3304	화장품	1	프랑스	678 (39.6)	865 (39.9)	1,136 (38.5)	511 (40.9)
			2	미국	258 (15.0)	300 (13.8)	416 (15.9)	180 (14.1)
			3	일본	187 (10.9)	232 (10.7)	371 (12.5)	160 (13.6)
			4	한국	107 (6.2)	142 (6.6)	203 (7.2)	82 (6.3)

주 : *는 2019년 1~5월 누계 기준, ()는 시장점유율
자료 : GTA, KITA

진입장벽

- 싱가포르는 개방경제를 지향해 진입장벽이 매우 낮음
 - 싱가포르는 차량, 담배, 석유, 주류 제품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국제 기준 도입, 투명한 행정,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애로사항도 없는 편임
 - 그러나 그만큼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진입해 있어 경쟁이 치열함

우리 기업 수출 성공·실패 사례 및 시사점

- (성공 사례) 현지 시장의 이해와 비디오 커머스 마케팅을 통해 수출에 성공한 세이션
 - 세이션은 2009년 ‘그라펜’이라는 남성 전문 화장품 브랜드로 런칭하였고, SNS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비디오 마케팅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싱가포르 소비자를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으며, 싱가포르 No.1 전자상거래 업체인 Qoo10에서 카테고리 중 단일 제품 판매량 1위를 달성함
 - 싱가포르 유통시장은 오프라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현지 진출에 어려움을 겪음. 세이션은 KOTRA 지사화 사업을 활용, 2개월가량의 현지 시장조사, 유통체인 파악을 통해 싱가포르 대형 드러그스토어 3사(왓슨, 가디언, SASA)와 단시간에 미팅을 진행함. 이후 현지 벤더와 계약을 체결, 5개월 만에 왓슨(Watsons) 60여 개 매장에 그라펜 샴푸 전제품 입점 계약을 완료함
 - 이는 발 빠른 현지 시장정보 조사, 오프라인 디렉스토어 입점결정권자 섭외 및 미팅, 기존 온라인으로 성공한 마케팅 콘텐츠(비디오) 활용 등 3박자가 잘 어우러진 결과임
- (실패 사례) 현지 소비 트렌드 및 시장 특성과 맞지 않는 마케팅 전략으로 수출 실패
 - 국내 운동기구 제조업체 A는 타 동남아 국가에서의 수출 성공을 바탕으로 싱가포르 시장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바이어 발굴에 실패
 - A사는 타 동남아국가에서 성공한 디자인(한글이나 태극기 활용)의 제품을 싱가포르에 적용하려고 했고, 세련된 글로벌 브랜드 디자인을 선호하는 싱가포르 바이어의 관심을 얻는데 실패함
 - 같은 동남아 지역이지만, 국민소득과 종교, 주요 소비자층에 따라 소비자 선호 가격대 및 디자인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세밀한 사전 시장 분석 필요
 - 특히, 싱가포르는 글로벌기업 7,000개사가 있는 지역으로, 일본, 유럽 등 우수한 패키징 제품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 어설픈 브랜드 전략은 지양 필요

다. 투자진출

싱가포르 투자현황 및 전망

- 싱가포르, 2019년 상반기 81억 달러 투자유치
 - 싱가포르가 2019년 상반기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에 81억 싱가포르달러의 높은 투자금 유치에 성공함. 이는 경기침체와 미·중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작년 동 분기 투자금 대비 53억 싱가포르달러 상승한 금액임
 -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은 올해 총 80~100억 싱가포르달러의 고정자산투자액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함
- 싱가포르 주요 산업별 투자 동향
 - 동남아시아의 금융허브인 만큼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약 54.5%로 가장 크고, 그 뒤로 도소매업(18.5%), 제조업(11.6%) 순의 비중을 보임

싱가포르 주요 산업별 FDI 현황

(단위 : 만 싱가포르달러,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제조업	156,996	14.1	166,793	13.2	170,148	12.6	181,582	11.6
건설업	3,945	0.4	3,541	0.3	4,425	0.3	5,298	0.3
도소매업	240,617	21.6	286,022	22.6	296,385	21.9	289,754	18.5
숙박요식업	5,314	0.5	6,366	0.5	6,514	0.5	6,709	0.4
운송저장업	38,409	3.5	40,505	3.2	28,866	2.1	31,322	2.0
정보통신업	18,643	1.7	21,554	1.7	20,314	1.5	30,538	1.9
금융보험업	516,665	46.4	582,933	46.0	668,854	49.4	853,807	54.5
부동산업	37,128	3.3	34,274	2.7	38,588	2.8	40,421	2.6
기타 서비스업	81,908	7.4	111,171	8.8	105,656	7.8	112,457	7.2
기타	12,724	1.1	14,822	1.2	15,071	1.1	16,086	1.0
총계	1,112,348	100.0	1,267,981	100.0	1,354,821	100.0	1,567,974	100.0

주 : 2019년 9월 작성일 기준 최신 자료

자료 : 싱가포르 통계청

우리 기업 투자진출 동향

- 우리나라의 싱가포르 투자진출 규모는 1968년부터 2018년 누적 기준 총 117억 달러로 2018년 투자금액 기준 진출국 8위를 기록함
 - 2018년 투자금액은 US\$ 15.7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49.2% 증가함

한국의 대(對)싱가포르 연도별 투자현황

(단위 : 개, 건, US백만 달러)

연도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2018년	142	1,570	509	3,146	604
2017년	98	1,052	335	1,421	503
2016년	69	1,179	261	1,420	396
2015년	69	1,458	237	2,106	368
2014년	58	980	224	903	344
합계(1968~2018년)	1,072	11,702	3,567	15,867	4,573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주요 경쟁국 투자진출 동향

- 2017년 기준 미국이 3,392억 싱가포르달러를 투자하며, 가장 높은 비중(35.5%)을 보인 가운데, 한국은 2016년의 싱가포르 투자국 순위 23위에서 상승한 18위(1.7%)를 기록함

싱가포르 국가별 FDI 현황

(단위 : 백만 싱가포르달러, %)

순위	국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미국	192,312	21.2	242,937	26.8	279,723	34.5	339,270	35.5
2	케이맨제도	105,903	11.7	109,811	12.1	106,878	13.2	138,218	14.5
3	영국령 버진제도	80,917	8.9	97,935	10.8	117,716	14.5	125,550	13.1
4	네덜란드	70,063	7.7	99,126	11	102,392	12.6	123,400	12.9
5	일본	110,106	12.2	115,247	12.7	92,795	11.5	99,945	10.5
9	홍콩	50,123	5.5	48,713	5.4	56,149	6.9	61,034	6.4
12	중국	16,195	1.8	22,689	2.5	23,939	3	36,294	3.8
18	한국	12,383	1.4	14,553	1.6	13,926	1.7	16,671	1.7
23	대만	7,576	0.8	10,781	1.2	16,780	2.1	15,790	1.7

주 : 2019년 9월 작성일 기준 최신 자료

자료 : 싱가포르 통계청

투자진출 진입장벽

- 싱가포르는 정부의 강한 투자유치 의지를 기반으로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여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이 진출했을 때 겪는 애로사항은 많지 않음
 - 영어 공용화, 투명한 행정, 정치적 안정성, 간단한 조세체계, 선진화된 인프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을 바탕으로 세계은행 발표 '기업하기 좋은 나라' 2위로 꼽힘
 - 다만 싱가포르 정부의 외국인력 제한정책으로 인해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요식업, 건설업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인력관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임

우리 기업 투자진출 성공·실패 사례 및 시사점

- (성공 사례) 파트너십 발굴을 통해 현지 시장을 공략한 O사
 - 국내 성공 사례를 활용하여 해외 시장에서 파트너십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 타 업체와 차별화된 독창적 기술과 특허를 기반으로 다양한 전시회 참여, 현지 법인의 적극적 영업 활동 등을 통해 현지파트너를 발굴하여 싱가포르 주요 슈퍼마켓 체인 등에 제품 납품 성공
- (실패 사례) 국내의 모델을 그대로 복사하여 현지화에 실패한 T사
 - 싱가포르 소비자의 특성과 우리나라에 비해 비효율적이고, 높은 물류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웹사이트도 한글이 혼재되어 있는 등 현지화 미비
 - 싱가포르는 다민족, 다문화 국가이며 직장인 중 외국인 비중이 높은 특성이 있음에도 현지 언론홍보 등은 중국어 매체를 통해 진행하여 홍보의 전파력이 떨어졌음

라. 인력진출

싱가포르 노동시장 동향

- 싱가포르 경기 둔화 속 일자리 줄어
 -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해고의 급증은 없었으나 2019년도 상반기 고용시장이 밝지 않음. 싱가포르 노동부(MOM)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불확실성 속에서 일자리 수가 감소했으며, 실업률이 증가하므로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실업자보다 일자리가 적어 6월에는 실업자 100명당 94개의 일자리가 생김
 - 2019년 2분기 제조업 부문의 고용 인원은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임. 반면, IT, 전문서비스, 금융 등 서비스 부문의 근로자가 증가했으며, 공공부문 건설 프로젝트로 건설 부문의 고용도 증가함
- 싱가포르 외국인 고용증가율, 현지인 고용증가율 앞서
 - 싱가포르 노동부(MOM)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취업자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3년 만에 국내 고용 증가율을 앞지름. 이 같은 외국인 고용의 증가는 주로 서비스업과 건설업에서 나타남
- 싱가포르 고용시장 전망
 - 글래스도어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 IT 일자리에 대한 수요와 임금이 모두 인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중 가장 고용 수요가 높은 직업은 사이버 보안 분석가, 테크놀로지 리스크 매니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프로젝트 매니저, 소프트웨어 개발자 순임

최근 5년간 인력 증감현황

(단위 : %, 천 명)

구분	증감률					총 인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8년 12월
산업 합계	130.1	32.3	16.8	-3.6	45.3	3,714.80
제조업(총계)	-3.9	-21.2	-14.4	-10.9	-2.4	487.6
- 현지인	0.7	-6.6	-5.6	-1	-1.8	245
- 외국인	-4.6	-14.5	-8.7	-9.9	-0.6	242.6
건설업(총계)	14.7	7.2	-11.3	-38.3	-7.1	444.7
- 현지인	5.1	0.5	-1.3	-5.5	-1.7	117.1
- 외국인	9.7	6.7	-10	-32.8	-5.4	327.6
서비스업(총계)	118.5	45.6	42.8	46	54.9	2,755.30
- 현지인	89.8	6.4	18.4	28.3	31.2	1,944.80
- 외국인	28.7	39.2	24.4	17.7	23.7	810.5

자료 : 싱가포르 노동부, 「Labour Market Report 2018」

우리 청년 해외 취업 동향

- 싱가포르 정부의 외국인 고용 제한정책 강화에 따라 2018년 한국 정부지원 해외 취업자 수는 2017년 대비 19.8% 감소한 405명으로 집계됨

최근 5년 싱가포르 내 한인 청년 해외 취업 현황

(단위 : 명)

취업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취업자 수	249	364	642	505	405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력진출 진입장벽

- 서비스 분야 외국인 고용의존비율 축소방침 발표
 - 서비스업 내 현지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외국인 고용의존비율(Dependency Ratio Ceiling)을 기존 40%에서 38%, 2021년 1월까지 35%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
 - 외국인 취업비자 중 하나인 S Pass의 경우, 서비스 분야 내에서 2020년 1월부터 기존 15%에서 13%, 2021년 1월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임
-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조건 강화
 - 취업비자(EP)를 제외한 S Pass(SP), Work Permit(WP)의 경우, 현지인 직원 수를 결정하는 최소급여 기준이 인상됨

현지인 직원 인정기준	기존	2019년 7월 1일 적용
1명 인정	월 S\$1,200	월 S\$1,300
0.5명 인정	월 S\$600~1,200	월 S\$650~1300

자료 : 싱가포르 노동부

- 저숙련(Mid-Skilled) 외국인 고용을 위해 S Pass를 신청하는 경우, 2018년에 최소월급 S\$2,200에서 S\$2,300으로 상향되었으며, 2020년에는 S\$2,400으로 조정될 계획임

취업비자 종류 및 특징

Employment Pass (EP)	대상	대학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춘 전문기술 보유 근로자
	최소급여	월 3,600싱가포르달러
	유효기간	최초 신청 시 2년, 갱신 시 3년
	특이사항	자국민 대상 Jobs Bank 채용공고 기준 변경(2018년 7월부) - 근로자 26명 → 10명 이상 기업 - 월 1만 2,000싱가포르달러 → 1만 5,000싱가포르달러 미만 지급 채용 건
S Pass (SP)	대상	대학학사 또는 전문대학 학위 소지자, 기술 자격증 소지자
	최소급여	월 2,300싱가포르달러(2019) → 2,400싱가포르달러(2020) 인상 예정
	유효기간	2년(갱신 가능)
	특이사항	해외인력 고용 할당(quota) 및 고용부담금(levy) 있음
Work Permit (WP)	대상	건설, 제조, 해양, 가공,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최소급여	조건 없음
	유효기간	2년(중국·방글라데시·인도·미얀마·스리랑카·태국인 최대 4년으로 확대)
	특이사항	해외인력 고용 할당 및 고용부담금 있음

자료 : 싱가포르 노동부

○ 인턴 및 워킹비자의 제도적 진입장벽

- 한국의 경우 인턴비자 발급가능 기관이 2개 대학으로 제한되며, 그 외 최소급여의 제한이 있어 한인 청년들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 워킹비자는 싱가포르 정부가 정한 10개국 소재 대학의 재학생·졸업생만 신청 가능하여 국내 대학 소재 학생의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함

인턴·워킹비자 종류 및 특징

Training Employment Pass (인턴비자)	대상	싱가포르 정부 지정 전 세계 200개 대학 학생
	가능학교	한국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전북대, 경북대, 부산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 11개 대학
	최소급여	월 3,000싱가포르달러
Work Holiday Programme (워킹비자)	유효기간	3개월(갱신 불가)
	특이사항	인턴비자 수료 시 동종 인턴비자 지원 불가
	대상	싱가포르 지정 10개국 대학교 재학생·졸업생(18~25세)
	대상국가	호주, 프랑스, 독일, 홍콩,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 미국 등 10개국 (신규 : 뉴질랜드)
	최소급여	급여 제한 없음
	유효기간	6개월(1년 뒤 재신청 가능)/호주는 12개월
	특이사항	- 워킹비자는 최대 2,000명 한도 내 비자 발급이 가능함 - 호주는 양자 협정상 500명 한도 내 12개월 체류비자 발급 가능

자료 : 싱가포르 노동부

 시사점

- 싱가포르 정부의 자국민 대상 고용 확대 장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에 대한 수요 존재
 - 한국과의 비즈니스 거래가 활발한 기업의 고객센터, 회계, 영업 및 마케팅 등 서비스 직종의 취업이 유망함
 - 구글·마이크로소프트·애플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기술영업직 또는 서비스직과 연간 1,8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의 수혜를 입고 있는 호텔·요식업 서비스직 또한 한국인 직원에 대한 수요가 꾸준함
- 한국인 직원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관심이 있고, 일상적인 비즈니스 영어 사용이 가능한 구직자라면, 싱가포르는 충분히 취업이 가능한 시장임
 - 이에 현지인과 더불어 외국인과의 취업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외국어의 실무적인 능력은 물론 취업 희망 직종의 선배 또는 종사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 수집 및 조언이 중요함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가. 교역

FTA 체결현황

- 한·싱 자유무역협정(KSFFTA)은 2006년 3월 발효되었으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은 2007년 6월 발효됨

우리나라와의 교역 현황

-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의 7대 수입국이자 8대 수출국임
 -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수입 시장과 수출 시장 모두 3.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싱가포르 국가별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수입					수출				
순위	국가	2017년	2018년	2019년	순위	국가	2017년	2018년	2019년
1	중국	25,205 (13.7)	28,818 (13.7)	27,755 (13.3)	1	중국	30,467 (14.4)	29,360 (12.4)	28,526 (12.7)
2	미국	19,757 (10.8)	23,387 (11.1)	25,584 (12.3)	2	홍콩	26,067 (12.4)	27,074 (11.4)	25,451 (11.3)
3	말레이시아	21,789 (11.9)	24,727 (11.8)	23,812 (11.4)	3	말레이시아	21,065 (10.0)	25,097 (10.6)	23,393 (10.4)
4	대만	14,787 (8.1)	17,622 (8.4)	18,209 (8.8)	4	미국	13,296 (6.3)	17,671 (7.5)	19,850 (8.8)
5	일본	11,642 (6.3)	12,839 (6.1)	11,297 (5.4)	5	인도네시아	15,456 (7.3)	19,611 (8.3)	15,820 (7.0)
6	인도네시아	8,326 (4.5)	8,811 (4.2)	8,900 (4.3)	6	일본	9,626 (4.6)	11,568 (4.9)	10,155 (4.5)
7	한국	9,295 (5.1)	7,990 (3.8)	8,208 (3.9)	7	대만	9,859 (4.7)	9,457 (4.0)	8,868 (3.9)
8	프랑스	4,894 (2.7)	5,931 (2.8)	6,769 (3.3)	8	한국	9,606 (4.6)	9,415 (4.0)	8,771 (3.9)
9	아랍 에미리트	5,038 (2.7)	5,499 (2.6)	6,658 (3.2)	9	태국	8,712 (4.1)	8,892 (3.8)	8,633 (3.8)
10	독일	5,319 (2.9)	5,842 (2.8)	5,910 (2.8)	10	베트남	7,257 (3.4)	6,946 (2.9)	7,464 (3.3)
-	전체	183,552 (100.0)	210,225 (100.0)	208,215 (100.0)	-	전체	211,027 (100.0)	236,838 (100.0)	225,424 (100.0)

주 : ()는 시장점유율, 2019년은 1~6월 누계

자료 : GTA

☛ 우리나라의 대(對)싱가포르 수출유망품목

- (간편조리식품) 간편하면서도 건강을 고려한 한국 조리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음
 - 싱가포르의 대(對)한국 간편식 수입규모는 2016년 194만 달러에서 2018년 214만 달러로 지난 3년 약 20.19%의 증가율을 보임
 - 사계절 내내 덥고, 습한 기후 특성상 보관이 긴 통조림 제품을 선호해 왔으나,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보다 더 신선하고,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냉동 식품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
 - 1인 가구 또는 핵가족화로 인하여 소용량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편 조리식품에 대한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최근 3~4년 동안 이어진 SNS를 통한 한류의 영향으로 인하여 한식의 인지도 상승 중 현지에서 한식의 이미지는 웰빙 건강식의 이미지로 맛과 영양소를 고루 갖춘 음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음

싱가포르의 대(對)한국 간편 조리제품 수입 동향

(단위 : 천 달러, %)

HS코드	품목	순위	국가	수입규모		
				2016년	2017년	2018년
1602	간편 조리제품	10	한국	194	178	214

자료 : GTA

- (헤어케어) 화학 성분이 없는 천연 제품과 다양한 기능성 제품의 수요증가
 - 싱가포르의 대(對)한국 샴푸 수입규모는 2017년 기준 약 224만 미국달러로, 지난 3년 평균 12.45%의 증가율을 보이며, 성장하는 추세를 보임
 - 싱가포르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화학 제품을 첨가하지 않은 헤어케어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헤어케어 제품은 이왕이면, 유명한 브랜드를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신제품 출시에 차별화된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
 - Qoo10, Lazada, Shopee와 같은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의 성장세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헤어케어 제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싱가포르의 대(對)한국 샴푸 수입 동향

(단위 : 천 달러, %)

HS코드	품목	순위	국가	수입규모 및 성장률		
				2016년	2017년	2018년
330510	샴푸	11	한국	1,773 (13.12%)	2,497 (40.83%)	2,242 (-10.21%)

자료 : GTA

나. 투자

우리나라 투자진출 현황

- 우리나라의 싱가포르 투자진출 규모는 1968년부터 2018년 누적 기준 총 117억 달러로 2018년 투자금액 기준 진출국 8위를 기록함
- 2018년 투자금액은 US\$ 15.7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49.2% 증가함

한국의 대(對)싱가포르 업종별 투자현황

(단위 : 건, 개, US\$천)

업종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도매 및 소매업	799	273	3,626,617	857	3,367,606
금융·보험업	227	90	4,931,115	257	3,296,101
제조업	605	180	1,890,190	1,120	1,622,447
광업	56	9	1,810,437	122	1,025,358
운수업	190	66	1,073,075	208	955,391
정보통신업	372	142	922,261	475	629,658
부동산·임대업	82	29	771,265	85	612,935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72	11	432,666	99	312,760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416	74	315,061	487	253,160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305	93	296,679	312	240,634
숙박 및 음식점업	235	41	243,368	294	215,515
건설업	156	47	230,080	204	182,683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8	69,838	29	22,584
농업·임업 및 어업	18	9	26,575	23	19,939
교육 서비스업	75	13	18,422	81	17,798
협화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6	11	3,247	37	2,036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13	3	1,730	17	1,603
기타	20	5	754	17	473
합계(1968~2017년)	3,690	1,104	16,663,380	4,724	12,778,681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1968~2018년 누계 기준)

우리나라의 대(對)싱가포르 투자진출 유망산업

-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진출 유망분야
 - (핀테크) 글로벌 IT 컨설팅회사인 Accenture에 따르면, 싱가포르가 중국과 인도에 이어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가장 큰 핀테크 시장 투자지’ 3위에 뽑혔으며, 싱가포르의 2019년 상반기 핀테크 투자는 작년 동 분기 대비 4배 증가해 4억 5,300만 미국달러를 기록하였고, 총 투자액의 28%가 인슈어테크(InsurTech), 27%가 전자결제 분야에 투자됨

- (5G 및 데이터센터) 부동산 컨설팅 회사 Cushman&Wakefiel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가 전 세계 38개국 중 3위,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선진 데이터센터 시장으로 분류됨. Google, Facebook 등 글로벌 IT 기업들 또한 싱가포르 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계획이며,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업체인 Keppel Data Centres는 싱가포르 내 데이터센터 운영 노하우를 토대로 홍콩, 호주, 유럽 등에 진출하고, 한국 진출도 계획 중
- 싱가포르의 2020년 5G 네트워크 구축 목표 달성은 데이터 소비의 대폭 상승으로 이어져 많은 투자와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함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5G 기반 스마트시티 등 ICT 분야협력

- 싱가포르는 도시국가 개발노하우를 활용, 국가 주도로 도시 교통·수처리·공공 데이터 등 각 분야에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 중
 - 싱가포르가 직면하고 있는 ① 생산성 향상, ②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③ 노령화 인력지원, ④ 국가 정체성 강화 등 어려움 해결을 위해 2014년 11월 ‘스마트네이션 플랫폼’ 구축 계획 선포
 - * 스마트네이션 : 싱가포르 전역의 센서 네트워크화, 전역에서 수집된 빅데이터의 AI 분석을 통해 교통, 에너지, 의료 등 공공 부문의 효율성 개선 목표
- 2020년 5G 네트워크 도입 및 5G 기반으로 한 풍골 디지털 지구(PDD) 구축 등을 앞두고 교통·환경 등 도시 인프라 관련 스마트 ICT 기술협력 수요증대
- (세부 협력 분야)

스마트네이션 추진 분야	협력 가능 분야
Strategic National Projects	전자결제, 디지털신원(National Digital Identity), 스마트 국가 센서 플랫폼, 스마트 모빌리티 등
Urban Living	스마트 노인 경보시스템, 스마트 타운 조성 등
Transport	자율 주행차 등
Health	의료용 로봇, 원스탑 헬스허브 등
Digital Government Services	OpenCerts(블록체인기반 인증플랫폼) 등
Startups and Business	핀테크 샌드박스, PDD(풍골 디지털 지구) 등

스타트업 분야 협력

- 스마트네이션 분야 오픈 이노베이션 확대
 - 싱가포르 IMDA(정보미디어개발청)이 주도하고 있는 산업 지원정책인 OIP(Open Innovation Platform)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발자 간 네트워킹을 통해 기술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모집
- 싱가포르 LTA(육상교통청)와 Enterprise Singapore(싱가포르기업청)은 2019년 발표한 육상 교통 마스터플랜 2040과 연계하여 ‘Call for Innovation’을 발표하는 등 싱가포르 정부 차원의 오픈 이노베이션 확대



Ⅲ. 진출전략

싱가포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허브로 부상해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시장임. 그러나 작은 내수시장, 높은 물가, 치열한 경쟁, 인력관리 어려움 등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함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싱가포르 시장 SWOT 분석>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싱가포르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바탕으로 혁신기술 보유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바, 투자가 모색 및 지원정책 적극 활용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활용
ST 전략 (강점 활용)	•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지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인바,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현지 파트너 모색	현지 네트워크 구축
WO 전략 (기회 포착)	•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인구 축소가 예상돼 정부는 ICT 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개선에 주력 중 •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도 증가 중	ICT 솔루션 시장 공략
WT 전략 (위험 대응)	• 작은 내수시장 규모로 인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최소발주 수량(MOQ)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진출	온라인 플랫폼 활용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1. 인구 고령화에 따른 헬스케어 시장 공략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18년 싱가포르 총인구 중 14.4%를 차지했던 65세 이상 인구가 2030년에는 2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싱가포르 보건부가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이 장기요양등급의 중증장애를 가지게 될 위험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힘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싱가포르는 ‘헬스케어 2020 마스터플랜’을 통해 의료시설 확대, 공공분야 의료 전문가 육성, 의료비용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음
 - 전 세계에서 노령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의료 지출이 1인당 평균 3천 미국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민 대상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지원 금액 및 대상 확대
 - 2019년 싱가포르 정부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노인 의료비 지원을 위해 총 61억 싱가포르 달러가 쓰일 계획이며, 메르데카 세대(Merdeka Generation)는 1950년대 생을 일컬으며, 이들 약 50만 명에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저축계좌 메디세이브(Medisave)에 매년 200싱가포르 달러씩 지원하는 등 각종 의료혜택이 제공될 예정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개개인의 특성과 니즈를 반영한 차별화된 전략 필요
 -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헬스케어 서비스가 싱가포르에 진출하고 있어 싱가포르 내 보건의료 시장의 수익이 감소하고 있음
 - 싱가포르 진출 희망 기업은 가격경쟁력을 고려함과 더불어 노인 대상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 개개인에 맞춘 상품 개발 필요
- 노인 대상 의료상품과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성장 유망
 - 로얄필립스가 발표한 미래보건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 의학 진단을 위한 인공지능(AI) 사용률이 28%로 조사대상 15개국 중 중국(45%)과 사우디아라비아(34%)에 이어 3위를 기록하였으며, 그 외에도 원격진료 등 보건의료 부문에서 각종 디지털기술의 도입 및 활용이 높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성장이 유망함
 - 헬스케어 인프라 구축, 시스템 개발,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등 산업이 지속 발전할 것으로 보임

2-2. 대규모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 예의 주시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싱가포르 건설/인프라 산업은 지속적인 공공부문의 건설 수요로 향후 10년간 평균 성장률 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싱가포르 정부, 건설업의 디지털화를 위해 400만 싱가포르 달러의 보조금 지원하고 있음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싱가포르 건설업 향후 10년간 평균 2.8% 성장 전망
 - 글로벌 경제의 성장둔화로 싱가포르 건설업 성장이 2021년에는 0.5% 저성장이 예상되나 창이국제공항 제5터미널과 MRT남북선 등 대형 건설프로젝트 진행으로 장기 침체를 벗어날 것으로 기대됨
-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개발 계획 발표
 - (창이 이스트 프로젝트) 창이국제공항 제5터미널 건설과 창이이스트 산업지구(Changi East Industrial Zone, CEIZ) 구축, Thomson-East Coast Line(TEL)의 지하철 노선 확대 등으로 공항도시 건설 목표
- 남방 해안 프로젝트(Greater Southern Waterfront) 계획 발표
 - 센토사섬과 브라니섬이 총 다섯 구역으로 나뉘어 대규모 관광지로 재개발될 계획이며, 공사 첫 단계가 2022년 완료될 전망이다. 센토사와 주변 조경 조성을 위해 약 9천만 싱가포르 달러가 투자될 계획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정부 조달 프로젝트 예의 주시 및 장기적 관점 접근 필요
 - 싱가포르 정부는 간척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국토의 총면적을 76,600헥타르(766km²)로 확대할 계획(현재 국토면적 722.5km²)으로 토지 매립 등 수요지속
 -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이 발표한 육상교통 마스터플랜 2040에 따르면, Jurong Regional 지하철노선과 Cross-Island 지하철노선의 추가로 기존 총 229km의 노선을 2040년까지 360km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므로 지하철 공사뿐만 아니라 지하철 차체 및 유지보수 등 연관 산업까지 확대 가능

2-3. '건강' 키워드로 소비재 시장 공략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싱가포르 보건부는 2013년부터 식품의 트랜스지방 함량을 최대 2%까지 제한 및 규제 진행
- 2021년 실시될 트랜스지방 규제에 찬성하는 6개의 현지 식품제조업체 및 슈퍼마켓이 트랜스지방 규제 도입 기한에 1년 앞선 2020년까지 트랜스지방 함유식품의 판매 금지를 발표
 - * 이 6개사는 트랜스지방 함유량이 가장 높은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 중 5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함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트랜스지방과의 전쟁 선포
 - 싱가포르 보건부(MOH)가 2021년까지 트랜스지방의 주요 원재료인 정제기공유지(PHOs)를 함유한 모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 규제는 싱가포르 국민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방침으로 수입 제품 및 가공식품 또한 대상으로 함
- 당뇨병을 대항하기 위해 설탕세 도입 고려
 - 싱가포르 보건부(MOH)는 당뇨병 발병을 줄이기 위해 음료 제품의 설탕함유량을 규제하는 설탕세의 도입을 고려 중임
 - 싱가포르 음료제조업체 7개사는 2020년까지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설탕 함유량을 12% 이하로 낮추기로 약속함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식품 관련 각종 규제 기준을 사전에 준비 및 진출 필요
 - 싱가포르 정부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각종 식품 관련 규제가 도입하면서 맛과 영양소를 고루 갖춘 웰빙 이미지의 한식을 찾는 싱가포르 소비자 또한 증가하고 있음. 이에 한국기업은 수출 식품생산 시 성분에 유의하여 싱가포르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생산 필요
- 천연 화장품, 생활필수품, 식품 등 각종 소비재 진출용이
 - 식품 이외에도 건강과 셀프케어에 관심이 많은 싱가포르 소비자들에게 화학 성분이 없는 천연 제품과 다양한 기능성 제품의 인기가 늘어나는 추세임
 - 특히, 싱가포르 온라인 시장 잠재성을 감안, 현지 대표 온라인 유통망 입점을 통해 사업 진출 시 보다 빠른 성장이 가능함

2-4. 친환경 선박기자재 수요 기대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싱가포르 항은 다국적 선사, 쉽 매니지먼트사, 기자재 중개업체 등 조선해양 산업군 관련 다양한 글로벌 기업이 상주
- 글로벌 조선해양산업이 유가 회복으로 인해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싱가포르 항은 2018년 전 세계 최고의 물류 환적량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기항 선박 수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IMO 해양환경규제에 따라 친환경 조선 시장 급부상
 - 싱가포르 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수리목적으로 기항한 선박 수가 3,762척(2016) → 3,507척(2017)으로 감소했으나 시장규모는 오히려 증가함
 - * 2017년 싱가포르 선박수리 규모 56억 싱가포르달러 기록(전년 대비 21.4% 증가)
- 싱가포르 조선·해양 산업 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활용 가속
 - Keppel Offshore&Marine(Keppel O&M)에서 싱가포르의 첫 자율운항선박을 개발 중이며, 싱가포르 항만청으로부터 약 15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아 개발하고 있는 이 65톤 예인선은 2020년 4분기에 처음 공개될 예정임
 - 현재 Keppel O&M은 이 외 현지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M1과 협업하여 선박과 육상 간 해상 통신 지연시간(latency)을 4.5G를 활용해 최적화하는 방법을 개발 중임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환경규제로 인해 싱가포르의 한국 선박부품 수요 증가할 전망
 - IMO 황산화물 규제로 인해 LNG 엔진 개조 및 스크러버 장착 수요가 증폭할 것으로 보여 선주사들의 비용부담이 증가, 일본과 독일의 비싼 제품보다는 가격대비 성능이 높은 중국과 한국산 부품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 싱가포르 선박부품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의 확보가 중요하므로 현지 선주사 및 조선소 대상 사업 설명회 및 정보 제공할 수 있는 자리마련이 필요함
 - 특히, 아시아 최대 조선기자재 전시회인 'Asia-Pacific Maritime 2020' 참가를 통해 글로벌 선사·엔지니어링 업체와 네트워킹 기회 활용 가능

3 한-싱가포르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1. 5G 시장진출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글로벌 컨설팅 및 리서치 기업 Analysis Mason은 2025년 싱가포르의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총 수익을 7억 1,400만 싱가포르달러로 예상함
- 부동산 컨설팅 회사 Cushman&Wakefiel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가 전 세계 38개국 중 3위,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발전된 데이터센터 시장으로 나타남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싱가포르, 2020년까지 5G 네트워크 구축 예정
 -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이 2020년까지 최소 2개의 전국적인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최종 4개 업체로 확대 변경함
- 싱가포르, 동남아 국가 중 5G 시장 잠재적 가치 가장 큼
 - A.T. Kearney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동남아 내 5G 기술을 통한 수익 창출 잠재력이 가장 큰 나라로서, 2025년까지 통신사의 수익이 5.1억 미국달러 예상
 - 특히, 싱가포르는 5G 로드맵을 통해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모바일 연결성을 확대하여 2025년 5G 보급률이 6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5G 관련 산업 발전 및 투자유치 유망
 - IMDA는 5G의 시장잠재력이 가장 큰 6개 분야로 해양 작전, Urban Mobility, 스마트 부동산, Industry 4.0, 소비자 애플리케이션, 정부 애플리케이션을 꼽음
 - 26/28GHZ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고정무선접속과 핫스팟, 5G 송신기 등 설비의 설치가 필요해 관련 단말기 및 부품 업체 진출이 유망함
- 대·중소기업 파트너링을 통한 5G 관련 산업 동반 진출 필요
 - 싱가포르 5G 시장은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으나 현지 3대 통신사 모두, 각각 Nokia, Ericsson, Huawei 업체들과 협력을 추진하는 바 네트워크 분야로만 국한된 진출은 한계가 있음
 - 국내 통신·네트워크 대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서포트 가능한 중소·중견기업들이 협력을 통해 AR,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등 진출 필요

3-2.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17년 IDC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약 15억 달러를 스마트시티 건설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53개 도시 가운데 가장 큰 투자액임
- 싱가포르는 특히 대중교통(택시·버스)에 자율 주행 기술을 도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 싱가포르는 2017년 세계 최초로 무인 자율 주행 택시인 NuTonomy를 선보인 바 있음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2018년 종료된 LTMP 2013을 이어 2019년 장기 개발 계획인 ‘육상 교통 종합개발 계획 2040’ 수립
 - 더불어 민·관간 협력 통해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스마트 신호등 관리 시스템 및 수요기반 공공 버스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진행 중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2020년 5G 네트워크 도입 및 ICT 기반 풍골 디지털 지구(PDD) 구축 등을 앞두고, 교통·환경 등 도시 인프라 관련 스마트시티 협력수요 존재

스마트네이션 추진 분야

분야	세부내용
Strategic National Projects	전자결제, 디지털신원, 스마트 국가 센터, 스마트 모빌리티 등
Urban Living	스마트 노인 경보시스템, 스마트 타운 조성 등
Transport	자율 주행차 등
Health	의료용 로봇, 원스탑 헬스허브 등
Digital Government Services	OpenCerts(블록체인기반 인증플랫폼) 등
Startups and Business	핀테크 샌드박스, PDD(풍골디지털지구) 등

주 : SNDGO

- G2G 협업,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현황 조사 및 정보 발굴 필요
 - KOTRA·국토교통부 주도로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청, 육상교통청 등 발주처 초청 교류를 통해 비공개 프로젝트 정보 수집 발판 마련 필요
 - * 2019년 6월 개최한 한-싱가포르 스마트시티 포럼(싱가포르 개최) 정례화 통해 매년 관련 현지기관/기업 및 국내 기업 간 정보 공유 및 상담 기회를 마련한 바 있음
- 싱가포르 정부기관(발주처)이 진행하는 컨퍼런스나 전시회에서 국내기업의 제품 및 기술력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관건임

3-3. 사이버 보안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핀테크, 스마트네트워크, 금융 등이 발달한 싱가포르는 안전한 역내 사이버 환경구축과 아세안 국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아세안-싱가포르 사이버안보센터(ASCCE)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2019년 10월 싱가포르 국제사이버 주간에 ASCCE 개소식을 진행함
- 2017년 사이버 보안 솔루션 관련 제품(HS코드 8523)에 대한 싱가포르의 전체 수입액이 전년 대비 60% 이상 크게 증가하였으며, 한국으로부터 수출 또한 55% 이상 증가함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CSA), 2019년 10월 사이버 보안 마스터플랜 발표
 - 싱가포르 내 교통신호 제어, 스마트 그리드 연결 등 국가 기반 운영기술(OT, Operation Technology)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임
 - 싱가포르 정부는 향후 사이버 보안 정보 공유 및 분석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며,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임
- 매년 약 9% 성장을 기록하는 싱가포르 사이버 보안 시장
 - PwC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싱가포르 사이버 보안 시장은 약 9억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IT 시장보다 빠른 성장이라고 설명함
 - 특히, IT 아웃소싱, 사이버 보안 컨설팅, 출입통제 등 분야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가 전체 사이버 보안 시장 지출의 1/4을 담당한다고 언급함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사이버 보안 강화 필요성에 따른 관련 제품 수요 증가 기대
 - 최근 싱가포르 정부 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가 발발하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점이 드러남으로써, 정부·금융·제조 분야에서 보안 기술 및 제품 수요가 높음
 - * 싱가포르 최대 의료기관 SingHealth에서 약 150만 명의 개인의료기록 해킹 사건(2018년 7월), 싱가포르 국방부 소속인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2017년 2월) 등 발생
- 아세안-싱가포르 사이버보안센터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 안전한 사이버 안보 환경 조성을 위한 역내 사이버 환경 개선 및 역내 국가 간 공동 대응을 위해 역량 강화 플랫폼 마련이 필요함
 - 정보 공유 범위를 한-아세안으로 확대하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이버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여 진출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 및 사례 공유 필요

4 진출 시 유의사항

대금결제 의무 명확화	대금결제 관련 변경요청은 수출 입자 간 반드시 유선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End user 미입금을 사유로 대금 지급 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수입자(중계무역자)가 물품을 한국에서 멕시코 End-user에게 선적하게 한 후 멕시코 수입자의 입금지연을 사유로 대금 미지급 - 계약서(P/O)상에 대금 지급 의무가 멕시코 수입자에게 있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 거절 ■ (대응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P/O등)에 대금 지급 의무 대상을 명시화, 추가로 무역보험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대금결제 계좌 변경요청 E-mail 수취 후 송금하였으나, 해킹된 메일로 밝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수입자 A는 수출자 B로부터 대금결제 계좌를 변경해 달라는 E-mail 수취 후 변경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이는 해킹에 따른 사기로 밝혀짐 - 수입자는 평소에 연락을 주고받던 이메일이라 별다른 의심이나 유선 확인 없이 송금을 진행 ■ (대응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결제 변경 관련 사항은 수출입자가 유선상으로 상호 확인할 것을 약정할 것,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무역보험 가입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3305	수입관세율(%)	0
	수입액('18/US\$백만)	75	대한수입액('18/US\$백만)	2
헤어케어 제품	선정사유	소비자들의 모발, 두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헤어케어 시장 성장세 지속 중이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규모는 2017년 기준 약 224만 달러로 지난 3년 평균 12.45%의 증가율을 보이며, 성장하는 추세를 보임		
	시장동향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화학 제품 무첨가 헤어케어 제품의 수요가 증가		
	경쟁동향	글로벌 대형기업인 L'Oréal, Unilever, P&G 등이 전체 샴푸 시장의 약 4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 브랜드들은 특정 카테고리(탈모, 모발케어, 컬링 등)를 강조하며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음		
	진출방안	Qoo10, Lazada, Shopee 와 같은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의 성장세로 인터넷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헤어케어 제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커머스 플랫폼은 낮은 초기비용 등으로 진입장벽이 낮으나 오프라인 채널과 온라인 매출을 함께 증대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 수립 필요		
품목명 2	HS Code	3304	수입관세율(%)	0
	수입액('18/US\$백만)	31	대한수입액('18/US\$백만)	1
유아용화장품	선정사유	높은 현지 소비자 생활 수준에 비해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부모들의 자녀를 위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유아용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시장동향	2018년 기준 시장규모는 약 3,200만 싱가포르달러 수준으로, 세면도구(30.8%), 스킨케어(22.1%), 아기 물티슈(20.6%), 헤어케어(18.4%), 선크림(6.7%) 순의 비중을 보이며, 젊은 싱가포르 부모들은 품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오가닉 제품에 매우 관심이 많아 실제로 그러한 제품에 돈을 더 지불할 의사가 높음		
	경쟁동향	Johnson&Johnson은 시장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1위로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와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유아용품 시장 리더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피죤은 약 20%의 점유율 유지. Tollyjoy는 상위 5개 기업 중 유일한 싱가포르 기업으로써 저렴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판매되고 있음		
	진출방안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제품들이 최신 유행에 민감하며, 매우 트렌디하다고 인식되나,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경쟁이 심해 현지 진출에 유념해야함		
품목명 3	HS Code	854370202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8/US\$천)	5,786	대한수입액('18/US\$천)	311
홈스파기기	선정사유	유로모니터에 의하면, 2018년 싱가포르 미용기기 시장규모는 2,230만 싱가포르달러이며, 2023년까지 연평균 3.1%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시장동향	사회 진출 여성의 셀프그루밍에 대한 관심 증가 및 빠른 생활 패턴으로 인해 현지 소비자들은 홈케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음		
	경쟁동향	2018년에 포레오(Foreo)가 전체 미용기기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LumiSpa(Nuskin), Clinique, Clarisonic 등 브랜드가 전체 미용기기 시장의 약 15% 차지하고 있음		

	진출방안	싱가포르 미용기기 시장은 비 유명브랜드의 오프라인 매장 입점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후에 오프라인 매장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음		
품목명 4	HS Code	2203	수입관세율(%)	16
	수입액('18/US\$백만)	221	대한수입액('18/US\$백만)	7
프리미엄주류	선정사유	한국산 주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맥주, 소주, 막걸리 등도 한국 레스토랑, 한국 식품 행사 등을 통해 소개되면서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시장동향	새로운 맛을 찾는 소비자, 가정 내 소비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주류를 접하기 쉬워짐		
	경쟁동향	싱가포르 Asia Pacific Breweries사는 싱가포르에서 Tiger, Heineken, Anchor 등의 맥주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외 네덜란드, 태국산 수입 주류의 비중이 큼		
	진출방안	국산 수제 맥주 등으로서 재료 및 제조과정을 차별화하여 소비자 공략 필요		
	품목명 5	HS Code	4201	수입관세율(%)
	수입액('18/US\$백만)	21	대한수입액('18/US\$백만)	1
애완위생용품	선정사유	싱가포르 애완용품(사료제외) 시장은 2014년부터 매년 5%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출산율 저하, 가족의 소규모화 등으로 애완동물을 위해 좀 더 비싸더라도 더 좋은 프리미엄 상품 구매가 늘어남		
	시장동향	애완용품도 친환경적 제품이 트렌드화 되면서 펫케어(삼푸, 비누 등) 및 애완 장난감 제조 시 오가닉, 친환경 소재가 사용되는지 소비자들이 눈여겨봄		
	경쟁동향	현재 싱가포르산 애완 위생용품 브랜드는 없으며, 주로 북미, 유럽 제품을 구매함. 국산 위생용품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 없음		
	진출방안	유통채널 내 애완용품점의 비중은 2018년 기준 63.1%로 가장 영향력이 큰 유통채널로 꼽힘. 하지만 애완동물을 키우는 밀레니얼 세대 등 젊은 세대에 의해 온라인 구매가 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입점도 하나의 진출 방법임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수입관세율(%)	n/a
(금융) 핀테크	선정사유	싱가포르 정부의 스마트네이션 정책 이행에 따라 핀테크 육성에 대한 투자 및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시장동향	3천여 개의 금융기업이 밀집한 금융허브이며, 핀테크 육성을 위한 국제경진대회 및 전시회 개최 중	
	경쟁동향	글로벌 금융기업 및 관련 스타트업들이 진출하여 경쟁 치열	
	진출방안	기술개발 초기 단계부터 현지 파트너와 협력 및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장 진입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품목명 2		수입관세율(%)	n/a
(교육) 에듀테크	선정사유	수학, 과학 등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이는 한국 학생들로 한국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에 대한 관심 증대	
	시장동향	싱가포르 3대 장기 이슈로 2022년까지 유아교육 부문 정부 예산이 약 2배인 17억 싱가포르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시설 증설 및 교육수준 역시 개선될 예정	
	경쟁동향	특정 과목 전문의 소규모 학원이 대부분이며, 몬테소리, 가베, 구몬 등의 교육기관이 진출하며 꾸준히 수요 증가	
	진출방안	글로벌 교육기관과 다르게 차별화된 콘텐츠를 부각시켜야 하며, 학부모에게 신뢰감 주는 이미지를 구축해야 함	
품목명 3		수입관세율(%)	n/a
(의료) 헬스케어	선정사유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의료기기 시장은 2023년까지 매년 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규제도 완화되고 있는 추세임	
	시장동향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싱가포르 정부 주도로 의료보조 지원이 더 늘어나고 있어 최첨단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음	
	경쟁동향	작은 시장규모에도 불구하고, CPTPP, EUSFTA 등의 많은 FTA가 발효되어 다양한 국적의 의료기기 업체들이 발 빠르게 진출 중	
	진출방안	싱가포르의 값비싼 의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진출하여 시장 내에서의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필요	
품목명 4		수입관세율(%)	n/a
(건설) 환경	선정사유	싱가포르 스마트시티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 주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프로젝트 (ex. Singapore Zero Waste)가 급증	
	시장동향	싱가포르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많은 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재활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	
	경쟁동향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프로젝트는 대부분 유럽계 회사가 수행 중	
	진출방안	소규모 친환경 폐기물 처리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친환경 중심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	

첨부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1. 수출 지원사업

중소·중견기업 진출 유망 제조업 분야 전략적 수출상담회 개최

- Korea Marine Day 2020(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설명/상담회)(3월)
 - 시기/장소 : 2020년 3월 18~20일/싱가포르 Marina Bay Sands Convention
 - 주요 내용 : 조선기자재 전문 전시회(Asia-Pacific Maritime 2020)와 연계하여 국내 기술력 홍보 및 산업 동향 설명회, 글로벌 등과 1:1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스마트 정보통신(ICT) 분야 해외진출 지원사업

- ConnectTechAsia 2020 한국관 지원을 통해 국내 ICT 기업 진출지원(6월)
 - 시기/장소 : 2020년 6월 9~11일/싱가포르 Marina Bay Sands Convention
 - 주요 내용 : 동남아 최대 ICT 전시회인 ConnectTechAsia 한국관 구축 및 IoT,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연관 기업 30개사 지원
- 2020 한-싱가포르 스마트시티 진출 협력 포럼(6월)
 - 시기/장소 : 2020년 6월 10일/싱가포르 Marina Bay Sands Convention
 - 주요 내용 : 양국 스마트시티 전문가 초청 발표, 1:1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2. 투자진출 지원사업

동남아 핀테크 허브, 싱가포르 진출 지원

- 글로벌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공동주최 핀테크 데모데이(상반기)
 - 시기/장소 : 2020년 상반기/싱가포르 도심
 - 주요 내용 : 글로벌 핀테크 CVC, 이노베이션센터와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
- 싱가포르 핀테크 전시회, Singapore Fintech Festival 참가(11월)
 - 시기/장소 : 2020년 11월/Singapore Expo
 - 주요 내용 : 핀테크 설명회, 글로벌 이노베이션센터 방문, 피칭 기회 제공 등

3. 인력진출 지원사업

우리 청년들의 싱가포르 취업 지원

- 싱가포르 취업박람회, Singapore JobFair 개최(7월)
 - 시기/장소 : 2020년 7월/싱가포르
 - 주요 내용 : 글로벌 기업 등 20개사 초청 한인 구직자 100명과 채용 면접 지원

첨부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싱가포르 총선	2021.4월 내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싱-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체결	2019.10.25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완료	2019년 말	
서비스세 도입	2020.1월	
2020/2021년도 예산안 발표	2020.2월 예정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CAFE ASIA-ICT EXPO	2020.2.20	
BuildTech Asia 2020	2020.3.11 ~ 13	
ASIA PACIFIC MARITIME	2020.3.18	

부록 **對싱가포르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I. 한-싱가포르 상생협력 필요성과 미래비전

가. 싱가포르의 협력 잠재력과 주요국 협력 현황

싱가포르의 잠재력

- 기업하기 좋은 나라 2위 싱가포르, 6.4억 명 ASEAN 시장 진출 교두보
 - *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8」 지적재산권 보호 아시아 1위
 - * Startup Genome 보고서 기준, 스타트업 인재 전 세계 1위, 낮은 법인세(최고 17%)
- 50년 넘게 인민행동당 단일 집권 → 매우 높은 정치적 안정성 유지
 - * 국제투명성기구(T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7」 세계 6위
- 외국인 직접투자, 동남아시아 전체의 53% 차지(2018년 약 770억 달러)
 - * PwC 보고서 기준,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핀테크 투자국 3위
- 세계 1위 창이공항, 한해 90개국 380여 개 도시 운항(2018년 6,560만 명 이용)
 - * World Bank, 「Logistics Performance Index 2018」 세계 7위(서울: 세계 25위)
 - * Skytrax, 「World Airport Awards 2018」 창이국제공항 세계 1위(인천국제공항: 세계 2위)

주요국의 대(對)싱가포르 경제협력 현황

주요국의 대(對)싱가포르 협력 현황

주요국	경제협력 전략 및 진행사항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발효된 중·싱 FTA는 중국이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 · 중국은 싱가포르의 제1위 교역국임(싱가포르 수출의 15% 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교역액 993억 미국달러, 2017년 기준 · 중국은 싱가포르와 협력, 동남아 진출 프로젝트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와 함께 중국 서부와 동남아 연결 개발 프로젝트(ILSTC) 추진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발효된 미·싱 FTA는 미국이 아세안 국가와 유일하게 체결 · 미국은 싱가포르의 제1위 투자국이며, 제5위 교역국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교역액 509억 미국달러, 2018년 기준 · 싱가포르에 약 4,200개의 미국기업이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엑슨모빌), 물류(DHL), IT(Google), 항공(P&W), 제약(Pfizer), 금융(JP Morgan) 등 다양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의 제3위 교역국이며, 제11위 투자국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교역액 509억 미국달러, 2018년 기준 · 싱가포르의 자본과 말레이시아의 값싼 토지 및 노동력을 결합한 공동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양국 경제 통합이 가속화됨 · 조호바루 Iskandar 경제특구 투자, 이스트코스트 지하철 노선(ECRL) 등 협력

동북아 허브(한국)-동남아 허브(싱가포르) 경제협력 노력 필요

○ 1975년 8월 정식 외교관계 수립 후, 양국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 유지

* 수교 이후, 양국 정상은 한국 12회 방문, 싱가포르 9회 방문 추진

○ 2006년 한-싱 FTA 발효 후, 양국 교역규모 발효前 대비 60.4% 증가

* 교역 : 2005년 127억 달러 → 2017년 205억 달러

* 투자 : 대(對)싱가포르 2005년(1.3억 달러) → 2017년(205억 달러), 대한(對韓) 2005년(3.8억 달러) → 2017년(17.9억 달러)

○ 주요국 대비 한-싱 교역규모, 2014년 이후 감소세로 개선 필요

*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대(對)싱가포르 주력 수출 품목에서 중국과 경쟁이 심화 등 경쟁력 하락

한국의 대(對)싱가포르 수출 관련 지표

(단위 : 백만 불,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출액	23,750	15,011	12,459	11,652	11,782
수출증감률	6.6	-36.8	-17.0	-6.5	1.1
무역수지	12,447	7,069	5,653	2,747	3,807

주 : KITA

한국-싱가포르 및 주요국 교역/투자 동향

1. 싱가포르의 연도별 주요국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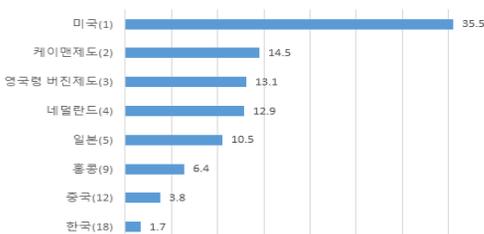
- 2018년 싱가포르의 주요국 수입액은 중국으로부터 약 288억 불, 말레이시아 247억 불, 미국 233억 불, 한국 79억 불 규모
- 2017~2018년도 증가율로 비교 시, 미국 약 18%, 중국 14%, 말레이시아 13% 증가했으나 상위 10개 수입국 중 한국만 -14%로 감소함

2. 대(對)싱가포르 한·중·미 수출 상위 5개 품목(HS코드 2단위, 2018년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한국	전자기기 및 부품	석유와 역청유	기계 및 부품	플라스틱	화장품
중국	전자기기 및 부품	기계 및 부품	석유와 역청유	광학기기	화학약품
미국	기계 및 부품	항공기 및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광학기기	석유와 역청유

- (수출경합도) 대(對)싱가포르 수출상위 5대 품목 가운데, 한국과 중국은 3개 품목, 한국과 미국은 3개 품목이 겹침

3. 대(對)싱가포르 투자진출 현황(2017년 기준)



- 2017년 기준 미국이 339억 불로 전체 FDI의 35.5% 차지
- 일본이 10.5%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약 1.7% 차지 (18위)
- 전체 투자 비중은 금융보험업(54.5%)이 가장 높으며, 도소매업(18.5%), 제조업(11.6%) 순
- 한국은 1968년부터 2018년 누적 기준 총 117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2018년 투자금액 기준 진출국 8위 기록

나. 한-싱가포르 상생협력 미래비전 도출

 **싱가포르, 연평균 2~3% 성장을 위해 '차세대 개척자'를 비전으로 삼고, 미래경제위원회를 발족 및 총 9,000여 명을 투입해 → 『7대 장기 성장전략』 수립**

* 미래경제위원회는 2010년 발족 후, 재무장관(헝쉬킵)과 산업부장관(이스와란)이 공동의장으로서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공공기관, 기업, 학자와 학생 등과 함께 2017년 전략 수립에 참여함

미래경제위원회의 7대 장기 성장전략

1. 국제 연계성 심화 및 다각화(Deepen and diversify our international connections)
2. 심도 있는 기술 습득 및 활용(Acquire and utilize deep skills)
3. 혁신과 성장을 위한 기업 역량 강화(Strengthen enterprise capabilities to innovate and scale up)
4. 우수한 디지털 역량 구축(Build strong digital capabilities)
5. 활기차고 연계된 기회의 도시 개발(Develop a vibrant and connected city of opportunity)
6. 산업혁신 지도 개발 및 구현(Develop and implement Industry Transformation Maps)
7. 혁신과 성장을 위한 협력 관계 강화(Partner each other to enable innovation and growth)

주 : The Committee on the Future Economy 2017

① 국가간 협력 강화 및 다각화를 통해 공정한 교역 질서 구축

- 싱가포르는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교역 및 투자 자유화를 실행하고, 보조무역주의에 대응코자 함
 - (국제협력) 중국과 '중칭 연계성 이니셔티브', 인도와 '안드라 프라데시 신수도 아미라바티 프로젝트' 등 협력 추진
 - (지역개발)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아시아 개발 협력
 - (혁신창출) 글로벌혁신연합 발족으로 싱가포르 기업과 해외기업 간 연계 추진

② 개별 산업을 넘어 산업군(Cluster) 변환정책 추진

- 싱가포르 정부는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16년 45억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산업 변환정책(ITM) 프로젝트 발표
 - 이후 2018년 4월, 싱가포르 GDP의 80%를 차지하는 23개 산업을 6개 산업군(Cluster)으로 묶어 각 산업별 협력기회 극대화 추진
 - * 6개 산업군 및 23개 산업 : (Manufacturing) 정밀 공학, 에너지&화학, 조선해양, 우주공학, 전기전자, (Built Environment) 건설, 부동산, 보안, 환경 서비스, (Trade & Connectivity) 무역, 육상운수, 해상운수, 항공 운수, 물류, (Essential Domestic Services) 헬스케어, 교육, (Modern Services) 전문서비스, 금융서비스, ICT& 미디어, (Lifestyle) 식품 제조, 요식, 숙박, 유통

싱가포르의 협력수요 산업

산업		구체적인 수요(협력방향)
전기전자	석유화학	◆ 4차 산업 분야 기술협력 - ICT, AI, 사물인터넷, 바이오·의료 등 ◆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 질서 구축 - RCEP, 한-싱FTA 등 시너지 ◆ 스마트시티, 제3국 공동 진출 협력 - ICT, 핀테크(금융) 등 ◆ 항공MRO 산업 협력 - 기술, 인력 개발 및 산업 발전 ◆ 효율적 에너지 시장구축 협력 - LNG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생의학	정밀기계	
물류	항공우주	
ICT	에너지/인프라	

주 :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사이트(www.edb.gov.sg) 에서 확인 가능

싱가포르의 권역별 협력수요

권역	내용
동북아	· 중국과의 Chongqing Connectivity Initiative(CCI) 통한 협력 강화 지속
아세안	· 미얀마와 투자 부문 국제분쟁조약 체결 · 필리핀과 이중과세방지협약 업데이트 및 양자항공협정 확대 모색
유럽	· 브렉시트와 별개로 EUSFTA 조항을 영국에 개별 적용하기 위한 절차 진행 중
서남아	· 인도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참여 통한 파트너십 강화
중남미	· 중남미 4개국(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과 싱-태평양 동맹(PASFTA) 협상 진행 중
중앙아시아	· 싱-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10월 25일 체결 예상

부록

아세안 시장진출 교두보인 싱가포르와 포괄적 협력 필요

- 2018년 7월 한-싱가포르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통해 한국의 **신남방정책** 이행 가속화 추진 표명

①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협력 ② 공정한 교역 질서 구축 ③ 에너지·인프라 협력

2018년 한-싱 신규 MOU 체결내용

MOU 명칭	주요 내용 및 의의
4차 산업혁명 기술협력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의료 등 공동 R&D 추진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질서 구축	RCEP 타결 공조, 한-싱 FTA 이행 점검 등
스마트그리드 협력	에너지자립섬, 스마트빌딩 등 스마트그리드 협력
LNG 도입물량 상호교환 협력	한-싱 대표 가스 기업 간 LNG 물량 교환, 정보 공유 등
스마트시티 제3국 공동 진출	제3국 스마트시티 시장진출에 양국 기업 참여 확대

II. 주체별 상생협력 과제와 실행방안

가. [G2G]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상호 호혜적인 협력

①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질서 구축 협력

- (정책 수요) 최근 심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에 맞서, 통상 체제와 자유무역을 수호하기 위해 양국의 노력 필요
 -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대외 대외의존도(326%)가 높은 나라로서, 미·중 무역전쟁, 한·일 무역 분쟁, 브렉시트 지연 등이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국제 이슈가 싱가포르에 미치는 영향

구분	내용
미·중 무역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tch Solution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장 타격을 입을 국가가 싱가포르, 한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나타남 • 특히, 싱가포르 수출의 25%가 중국과 홍콩이며, 수출 품목 대부분이 전자 제품과 기계류로 전자 제품 재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양국의 무역 분쟁 결과에 따른 경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한·일 무역 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6월 전자 제품 선적량이 31.9% 감소하여 전자 제품 수출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함 • 이는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인해 전자 제품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이 있어 양국으로부터 부품, 중간재를 조달받는 싱가포르의 수출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협력 방안) 한-싱 FTA 이행위 개최, 한-아세안 FTA 추가 협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가속화 등 공정한 교역질서 구축을 위해 협력 추진
 - 2018년 7월 한-싱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질서 구축 협력 양해각서(MOU)' 효력발생일(2018년 7월 12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한-싱 FTA 이행위원회를 개최해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4차례 위원회 개최
 - * 한-싱 FTA 제22.1조에 따라 양국은 양측 합의하에 이행위를 개최할 수 있음

한-싱 FTA 이행위원회 개최내역

- ◆ 2018년 7월 양국 MOU 후속 조치로, 제4차 한-싱가포르 FTA 이행위원회 2018년 11월 개최
 - * 2006년 한-싱 FTA 발효 후, 총 3차례(2009년 1월, 2012년 11월, 2015년 7월) 개최
- ◆ 양국 산업부 대표, FTA 발효 후 교역·투자 등 이행상황 점검 및 글로벌 통상 변화 논의
 - * 양국의 FTA 활용 기업들이 제기한 애로사항 협의, 수출입 및 통관과정 개선 방안 협의
- ◆ 한-칠레 FTA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체결한 협정으로 양국 간 교역·투자확대에 크게 기여함

구분	구분	2005년 규모	2017년 규모	FTA 발표 전 대비 증가율
		수출	74억 달러	116억 달러
교역	수입	53억 달러	89억 달러	67.4% 증가
	한 → 싱	1.3억 달러	14.2억 달러	1,043% 증가
투자	싱 → 한	3.8억 달러	17.9억 달러	461% 증가

2 상호 시너지 활용 R&D 기술협력 추진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협의

- (정책 수요) 양국 정부는 바이오·의료 분야 기술협력을 통해 양국이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협력 희망
 - 싱가포르는 4차 산업혁명 준비도(2위), 국가혁신경쟁력(3위), 기술무역도입(3위) 등 혁신역량을 보유한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서 양국 협력 시너지 기대
- (협력 방안) 바이오·의료,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분야 공동 개발을 위한 양국 공동펀딩형 연구개발(R&D) 프로그램 신설, 첨단 기술 세미나, 인력 교류 등 협력 추진 필요

한-싱 산·학·연 협력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

- ◆ 바이오·의료 분야 내 양국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2019년 9월)
 - * 세부 분야 : ① 디지털헬스케어, ② 맞춤형바이오치료제, ③ 스마트의료기기
- ◆ 양국 컨소시엄(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이 공동으로 기술개발 협력 시, 양국 정부가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한-산업부, 싱-통상산업부)
 - * 양국 기술자원을 효과적 활용을 위해 국가별 최소 2개 기관이 참여하여 컨소시엄을 구성

미래 에너지 산업 공동 육성

- (정책 수요) 석유·원자력 등 전통에너지에서 LNG 등 친환경에너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과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활용한 미래 에너지 산업 개발을 통해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필요
- (협력 방안) 에너지자립섬*, 스마트빌딩 등 다양한 스마트그리드 협력 모델을 발굴하여 아세안 및 제3국 공동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 한국은 신재생과 ESS를 연계한 에너지자립섬 모델을 도입·운영 중이며, 현재 총 56개의 에너지자립섬 프로젝트 추진 중
 - 추가로, 안정적이고 저렴한 LNG 수급을 위해 도입물량 상호교환 협력, 인수기지·배관망 운영 정보 공유, 병커링 사업 공동연구개발 협력 기대
 - * 한국가스공사-싱가포르 Pavilion Energy 간 LNG 투입 물량 상호교환 협력 MOU 추진(2018년 7월)

한-싱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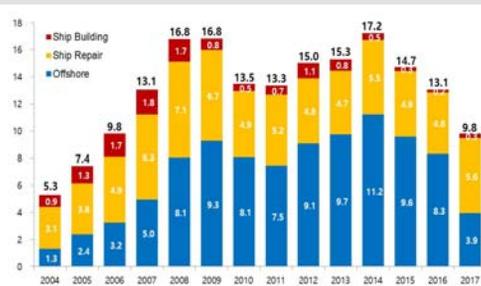
- ◆ 양국 산업부 주도, ESS·태양광 2개 분야 에너지국제공동연구 추진(2019년 5월)
 - * ESS : 밀폐구역 및 고온다습한 기후 조건에서 비용 절감이 가능한 화재안전/냉각 방법
 - * 태양광 : 비용 효과적인 소규모 태양광(루프탑 태양광), 보급형 태양광(수상태양광) 등
- ◆ 한-싱가포르 간 신재생에너지 공동연구를 통해 국가 차원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에너지 신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B2B] 양국 기업 간 산업 협력

① 제조업 [조선해양, 조선기자재]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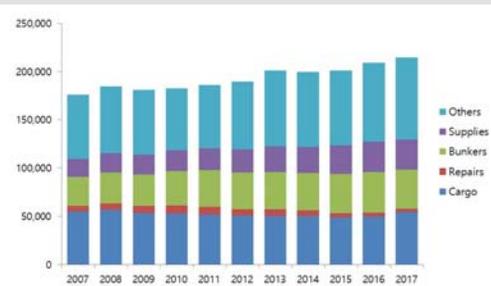
- (정책 수요) 싱가포르는 LNG 산업 가능성을 주목하여 초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
 - 국제항만 LNG 벙커링 협의체*(2016년 9월 구성) 정기회의에 참여(2017년 4월)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 LNG 벙커링 기준 마련 중
 - * 싱가포르, 울산항, 로테르담, 앤트워프, 잭슨빌, 상해 등 11개 항만 참여
 - 싱가포르 정부, LNG 추진 선박 등 친환경 선박 전환 시 척당 최대 약 15억 원 제공, 등록세(50%)·톤세(20%)·항만사용료(25%)을 감면해 주는 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 해양항만청(MPA), LNG 선박 8척 건조(\$1천8백만), LNG 벙커 선박개발(\$6백만) 등에 총 \$2천6백만 투자
- (시장 수요) 2014년 이후 국제 오일가격 하락, 조선해양플랜트 발주량 감소로 하양세를 보인다, 최근 환경규제에 따라 친환경 조선 시장이 급부상함
 - * IMO 규제 : 선박 배출 오염물질 감소(2020) 및 선박평형추 처리장치 설치 의무화(2024) 등
 - 싱가포르 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수리목적으로 기항한 선박 수가 3,762척(2016년) → 3,507척(2017년)으로 감소했으나 시장규모는 오히려 증가함
 - * 2017년 싱가포르 선박수리 규모 56억 싱가포르달러 기록(전년 대비 21.4% 증가)

싱가포르 조선해양산업 규모 (단위 : \$10억)



자료 : Association of Singapore Marine Industry

싱가포르 기항 목적별 선박 수 (단위 : 개)



자료 : 해양항만청(MPA)

- (협력 체계) 현지 선주사 및 조선소 대상, 국내 기업들과 네트워크 지원

Korea Marine Day 2020 개최

- ◆ 아시아 최대 조선기자재 전시회인 'Asia-Pacific Maritime 2020'과 연계하여, 국내 기술력 및 산업 동향 공유, 글로벌 선사·엔지니어링 업체와 비즈니스 상담 지원

- * 행사명 : Korea Marine Day 2020(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설명/상담회)
- * 시기/장소 : 2020년 3월 18-20일/싱가포르 Marina Bay Sands Convention
- * 기대성과 : 잠재 바이어 및 파트너사 발굴, 기존 거래처 관리를 통한 수출 확대

2 소비재[온라인]

- (시장 수요) 구매력이 높고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가 많아 **고가 제품·화장품 등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시장이 괄목할 성장을 기록함**
 - Qoo10, Lazada, Shopee 등 아세안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들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경쟁함으로써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
 - * 2018년 기준, 전체 소매유통 2017년 대비 2.5% 성장한 반면, 온라인 45.2% 성장
 - * 싱가포르는 동남아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의 거점지역으로 Qoo10이 1위 시장점유율(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 Shopee(5%), NTUC FairPrice(4.8%), LAZADA(4.1%) 등이 있음

싱가포르 온라인 시장 잠재력

- ▶ 싱가포르의 해외 온라인 쇼핑물 이용률은 73%로, 홍콩(75%) 다음으로 높으며, 말레이시아(40%), 한국(25%), 일본(18%) 보다 커, 앞으로도 Cross-border e-commerce(해외 판매자와 해외 소비자 간 직접 거래) 성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 싱가포르 이커머스 시장규모, 2017년 전체 소매의 5.3%에서 2022년 10.3%로 상승 기대
특히, 모바일 커머스 시장은 모바일 결제와 전자결제 수단 사용 증가에 따라, 매년 13%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2019년 싱가포르 전체 온라인 시장의 5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 역량)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의 최근 5년간 대(對)싱가포르 수출이 175% 증가, 유아용품, 패션, 식품 등 소비재 전반에 걸쳐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한류의 영향으로 현지 뷰티 블로거·유튜버들이 한국식 화장법 튜토리얼, 화장품 리뷰 등의 콘텐츠를 다루면서 K-Beauty 인지도가 크게 상승했으며, 비디오 콘텐츠(Youtube, Instagram)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음
- (협력 전략) 싱가포르 온라인 시장 잠재성을 감안, 동남아시아 교두보로 활용
 - 현지 대표 온라인 유통망과 연계한 국내기업 제품 소싱·판촉 지원

온라인 유통망-국내 제품 소싱·판촉 지원

- ◆ **싱가포르 대표 온라인 플랫폼인 Qoo10, Lazada, Shopee 3개사*와 함께 Korea Sales Festa(KSF) 연계 온라인 판촉전을 추진, 국내 제품의 싱가포르 입점 지원**

- * 시기/장소 : 2020년 10월~11월/온라인 플랫폼 물
- * 주요 내용 : 소비재 중심 화장품, 식품, 의류 등 국내기업 200개사 판촉 지원
- * 기대성과 : 온라인 입점을 통해 향후 안정적으로 온·오프라인 시장 정착 기대

<싱가포르 온라인 플랫폼>

기업명	매출액	플랫폼 특징	한국 제품 입점 비중
Qoo10	S\$ 5억	연간 1,600만 명 방문하는 No.1 플랫폼	전체 매출의 30%
Redmart	S\$ 4억	싱가포르 식품분야 1위 플랫폼	전체 매출의 5%
Shopee	S\$ 2.5억	2015년 설립된 기업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 중	패션, 화장품, 생활용품 등

3 스타트업[핀테크]

- (정책 수요) 싱가포르 정부는 금융허브로서 입지 강화 및 금융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핀테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정부 간 협력을 추진
 - 싱가포르는 통화청(MAS) 내 핀테크 전담조직(FTIG) 운영 및 싱가포르 내 다국적 금융·IT 기업 이노베이션센터 22개소 운영 중
 - * MAS는 2015년 Fintech&Innovation Group을 개설, 금융정책 개선 및 개발 장려 기능 수행
- (협력 방안) 2018년 한-싱 정상회담 당시 양국의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모색

한-싱가포르 B2G 협력

- ① 중소기업벤처부-싱가포르기업청(ESG)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MOU 체결
- ② 금융위원회-싱가포르통화청(MAS) 핀테크 업무협약 개정

◆ (중소기업벤처부)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개소 계획(2020년 이후)

- 싱가포르에 공유 오피스 형태의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를 향후 개소할 계획이며,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창업지원에 초점을 맞춰 지원할 예정
- * 현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프로그램 제공, 벤처캐피탈(VC) 연결 지원 등

◆ (금융위원회) 한-싱가포르 핀테크 업무협약 개정(2019년 7월)

- 양국 간 업무협약 개정을 통해 인가 절차(Referral Mechanism) 지원 등 한-싱 핀테크 기업 간 상호 교류 및 금융 당국 간 협력 강화추진

- (지원사업) KOTRA 해외투자진출·창업 지원 플랫폼을 활용, ACE, ESG 등 현지 창업지원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
 - 법인설립 및 스타트업 보육시설 입주 지원, 투자유치 연결, 인력 채용지원 등

한-싱가포르 B2B 협력

◆ 싱가포르벤처캐피탈협회(SVCA)와 협력,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VC와 이노베이션센터와 상담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싱가포르 진출 기회 발굴

- 행사명 : 글로벌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핀테크 데모데이
- 시기/장소 : 2020년 상반기/싱가포르 도심
- 주요 내용 : 글로벌 핀테크 CVC, 이노베이션센터와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

◆ 싱가포르통화청(MAS) 주관, 약 3만여 명 규모의 핀테크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대표적인 핀테크 스타트업 종합 전시회에 KOTRA 한국관을 구축, 국내 스타트업 참가 지원

- 행사명 : 2020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Singapore FinTech Festival 2020)
- 시기/장소 : 2020년 11월/싱가포르 Expo
- 주요 내용 : 핀테크 설명회, 글로벌 이노베이션센터 방문, 피칭 기회 제공 등
- * 한국관 참가기업 2년 연속 핀테크 어워즈 최종 우승 : Blocko(2017년), Everspin(2018년)

다. [B2G] 도시 인프라 개발 협력 강화

1 협력수요

- (정책 수요)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은 장기 개발 계획인 ‘육상교통 종합 개발 계획(Land Transport Master Plan, LTMP) 2040’ 수립
 - 2018년 종료된 LTMP 2013을 이어 2019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 자동차 줄이기(Car-lite)를 주요 목표로 8가지 전략*으로 구성

- ① 가정과 더 가까운 일자리와 편의 시설 ② 도로 재설계 ③ 더 많은 직접 여행 촉진
- ④ 지역사회를 위한 더 많은 공간 마련 ⑤ 친환경적인 인프라 설계 ⑥ 통근문화 관리
- ⑦ 교통사고 사망 제로 ⑧ 보다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교통 환경 조성

- 이 외에도 LTA는 민·관간 협력 통해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스마트 신호등 관리 시스템 및 수요 기반 공공버스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중
- (기술 수요) 2020년 5G 네트워크 도입 및 ICT 기반 풍골 디지털 지구(PDD) 구축 등을 앞두고 교통·환경 등 도시 인프라 관련 스마트시티 기술협력 수요증대

스마트네이션 추진 분야

분야	세부내용
Strategic National Projects	전자결제, 디지털신원, 스마트 국가 센서, 스마트 모빌리티 등
Urban Living	스마트 노인 경보시스템, 스마트 타운 조성 등
Transport	자율 주행차 등
Health	의료용 로봇, 원스탑 헬스허브 등
Digital Government Services	OpenCerts(블록체인 기반 인증플랫폼) 등
Startups and Business	핀테크 샌드박스, PDD(풍골디지털지구) 등

주 : SNDGO

2 협력 방안

- (1단계) G2G 협업,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현황 조사 및 정보 발굴
 - 조사내용 : 싱가포르 스마트시티 시장 동향, 발주처, 현지파트너 정보 등 조사 추진
 - G2G 협업 : KOTRA·국토교통부 주도로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청, 육상교통청 등 발주처 초청 교류를 통해 비공개 프로젝트 정보 수집 발판 마련
 - * 2019년 6월 개최한 한-싱가포르 스마트시티 포럼(싱가포르 개최) 정례화 통해 매년 관련 현지 기관/기업 및 국내 기업 간 정보 공유 및 상담 기회 마련 추진
- (2단계) 국내기업의 현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참여 및 국내-현지 파트너십 창출
 - 타깃 분야 : 스마트 타운 조성 및 PDD(풍골 디지털 지구), 스마트 교통 인프라

- 지원 방안 : ① 프로젝트 정보 전파, ② 국내전시회/수출상담회 전략적 발주처 방한 초청, ③ 발주처와 선별된 국내기업 초청 핀포인트 상담회 추진

2020 한-싱가포르 스마트시티 포럼 개최

◆ **싱가포르 교통·환경·도시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국내기업과 현지 주요 발주처·조달 에이전트 간 1:1 상담회, 한-싱가포르 스마트시티 현황발표 세미나 추진**

- * 행사명 : 2020 한-싱가포르 스마트시티 포럼
- * 시기/장소 : 2020년 상반기/싱가포르 Marina Bay Sands Convention
- * 주요 내용 : 국내기업 10개사 내외, 발주처·조달 에이전트 20개사 내외 상담회/세미나
- * 주요 분야 : 스마트 교통 인프라 개발, 도시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시스템, 스마트 타운 등

향후 수주 가능한 싱가포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개요

1 [에너지/환경] Zero Waste Nation Project				
프로젝트 개요	발주처명	National Environment Agency	입찰기간	2020년 초
	규모(\$백만)	100	사업기간	2020~2029년
프로젝트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Zero Waste Masterpl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8월에 발표된 싱가포르 환경청(NEA)의 마스터플랜으로 2030년까지 매일 매립지로 보내지는 폐기물을 30% 줄이고, 전체 재활용률을 70%까지 높여 친환경 스마트시티를 구현할 계획 ○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세부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시행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에너지 재활용 확대, 분리수거/소각처리 시스템 개선, 음식폐기물 처리 시스템 개선,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캠페인(Bring your own cup or bottle) 			
추진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Semakau 매립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스템 개선 및 재활용 확대, 폐기물 처리 관련 신기술 도입 등이 필요한 상황임 			
수주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정부는 대규모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술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호커센터(푸드센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와 같은 소규모 친환경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도 보유 기술 및 실적을 어필할 경우 수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2 [교통] Facilitate Safer Journeys Project				
프로젝트 개요	발주처명	Land Transport Authority	입찰기간	2020년 초
	규모(\$백만)	494	사업기간	2020~2029년
프로젝트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nd Transport Master Plan 2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5월에 발표된 싱가포르의 교통 마스터플랜으로 세부계획으로 "Facilitate Safer Journeys" 수립하여 도로 인프라 및 교통 체계를 개선해 노약자의 보행안전 및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강화한 스마트시티를 구현코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년층의 교통안전을 강화한 50개의 실버존 설치(2023년까지) * 비보호좌회전 금지, 우회전 통제/적황색 화살표 신호체계 도입(2023년까지) * 1,500개 보행자 신호등 추가, 1천 개 장애인/노인층 위한 신호체계 개선(2026년까지) * 1,000km 이상의 신규 자전거 도로 설치(2040년까지) 			
추진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정부는 빠르게 증가하는 노년층에 대한 교통안전 확보와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중심의 친환경 교통 체계 확대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시행 			
수주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부터 교통관련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관련 실적을 어필하면, 수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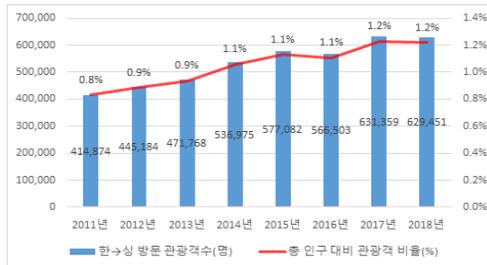
라. [국민] 동북아-동남아 있는 파트너십 확대

단순 관광교류를 넘어 인재교류, 경제협력 그리고 상생 파트너 관계 구축 필요

- ▶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양국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한국 → 싱가포르 51.7%, 싱가포르 → 한국 86.1%로 대폭 증가하는 등 상호간의 교류가 지속 확대 전망
- ▶ 특히, 싱가포르는 2010년 이후, 한류의 영향으로 20~30대 여성층을 주축으로 한 관광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 2018년 기준 인구 대비 4.1%가 방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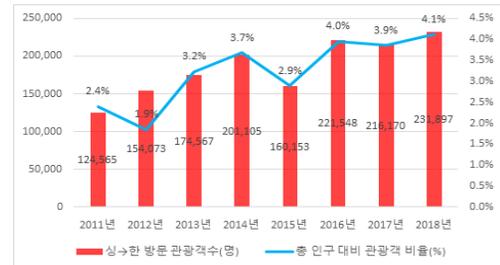
지난 8년간 양국 인력 교류 현황

싱가포르 방문 한국 관광객수 (단위: 명)



자료 : 한국관광공사, 통계청

한국 방문 싱가포르 관광객수 (단위: 명)



자료 : 싱가포르통계청, 싱가포르관광청

1 상생을 위한 인력교류 확대방안

- 양국 간의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 협약을 활용한 정부 차원의 교류 추진필요

한-싱 인력교류 포함 MOU 체결내용

한국	싱가포르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산업부	4차 산업혁명 기술협력 및 인력교류
KOICA	외교부	양국 인적자원 개발 및 개도국 무상 협력사업 추진
에너지기술평가원	EMA	스마트그리드, 태양에너지 등 기술 분야 공동연구
경기도	ESG	양국 투자진출 시 정보제공 및 행정지원 등

2 CSR 활성화

싱가포르 진출 국내기업의 CSR 활동 현황

기업명 (CSR 활동명)	CSR 세부내용
신한은행 (봉사·자금지원)	- 현지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와 한인 교민사회를 위해 봉사활동 추진 - 현지 진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해 시설자금 지원
동원 등 3개사 (제품 기증)	- 싱가포르 온라인 플랫폼 Qoo10과 언론사 Mediacorp와 함께 국내 중소기업(한국맥네티, 동원, 아다달) 3개사 제품을 자선단체(Willing Hearts)에 기부함
세믹스 (기술학교)	현지 반도체 업계 종사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일 반도체 기술학교'를 운영,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현지 인력의 기술 역량을 제고함

Ⅲ. 향후 對싱가포르 K패키지 실행체계(안)

한-싱가포르 경제협력 이행위원회 정례적 개최

- (한)산업통상자원부-(싱)통상산업부(MTI) 주도, 경제협력 이행위 연 2회 개최
 - 양국 정부·기관·기업 간 체결된 주요 MOU 등의 가시적 성과 달성과 상호 협력 가능한 신규 과제 발굴을 위해 정부 주도의 지원 필요

한-싱가포르 분야별 경제협력 이행위원회(안)



한-싱가포르 상생협력 요약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이효봉	과장	싱가포르무역관	+65-6426-7205	hblee@kotra.or.kr

KOTRA자료 20-056

2020 국별 진출전략 **싱가포르**

발행인 권평오
발행처 KOTRA
발행일 2020년 1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화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의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202-6(95320)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